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7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376 호

신개념 전자칼라인등 佛心院 -안전성·경제성·편리성- 서울조계사 入口 성운공업 1층 ☎ 02)725-0250(代)

법석 초대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백년간 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지만 3일만 수행해도 그 복덕은 100년을 갑니다. 그러니 일념으로 수행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정보격차 해소사업 불교 소외

문화재 관련 제외하면 500여 사업중 단 1건뿐

정책수립때 불교문화 중요성 고려안돼

불교계가 국가의 정보격차해소 등 각종 정보화사업에 소외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 따라 실시된 2002년도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을 본지가 조사한 결과 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자원관리, 문화정보화 등 10대 국가정보화 분야 500여 사업 가운데 문화재 관련사업을 제외하면 불교관련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가정보화 비전인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6'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이나 이용가치가 있는 불교관련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10대 국가정보화 사업분야 가운데 불교가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격차해소 분야다. 대다수 지방 사찰은 정보화의 기본인 통신망 등 정보기반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소외지역에 통신망 구축비를 지원하고 전국 우체국, 학교, 공공기관 등을 지역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텐츠 개발 등 지역 정보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 국가 문화재나 성보박물관, 기타 비지정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문화 거점의 최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국립 또는 도립 공원 내에 위치한 대형 사찰의 경우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도 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에서는 장애인, 농 · 어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사회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에 대한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채 정보화 소외 계층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불교가 국가정보화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교의 문화 · 역사 · 환경 · 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 역사 · 문화 · 문화재 · 풍습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응용이 가능한 불교분야를 좀더 깊이 연구해 중요한 국가 정보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행위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참가한 스님들이 'LG제품 불매' '북한산 수호' '현정부 규탄' 등을 외치며 조계사에서 종묘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사진= 고영배 기자

"북한산 도로 백지화 거듭 촉구"

5천여 사부대중 26일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

LG제품 불매 · '북한산 수호대' 발족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하라'"

북한산국립공원 파괴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6월 26일 조계사에서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북한산 개발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법등(조계종 종회의원) 총마(종단협 사무총장)스님, 문정현신부의 규탄사, 운산(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의 운만봉정식, 고은 시인의 '북한산을 죽이지 말라' 시낭송, 북한산살리기 환경수호대 발족식 등의 순으로 열린 이날 범불교도대회에서는 송추현장에서 비구니스님을 폭행한 LG그룹을 응징하기 위해 LG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이날 범불교도대회에서는 회룡사 능진스님등 비구니스님 6명이 즉석에서 '현 정권 규탄' '수행환경 수호' '북한산 수호' '불교탄압중지' 등의 혈서를 써 부처님 전에 바친 뒤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가불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 파괴중단 대 정부 촉구문을 발표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계획 철회, 공사중단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불교 말살적 개발정책 중단 △수행생활과 환경, 문화적 전통파괴 중단 △리우환경선언의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 적용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등 6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종묘까지 거리행진하며 현 정부와 LG그룹의 북한산 파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관련기사 2 · 2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국평화통일불교협, 한국JTS 2개 단체

남북협력기금 8억5천

통일부는 19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JTS 등 10개 민간단체의 11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2억9천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불교계는 총 8억5천6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일부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에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사업기금으로 1억6천만원(총사업비 4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농업기술 및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으로 6억9천600만원(총사업비 13억9천8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초 북한어린이 월동용품 및 급식지원 사업을 전개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조계사를 문화공간으로"

"조계사 일대는 인사동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한 공간이다. 조계사라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곳에 조계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사 일대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적인 가치와 역사성 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말이 아니다.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 경기대 건축학부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 '상생(相生)'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종립학교 학생도 아닌 어찌보면 불교와 다소 관련이 적은 경기대 학생들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에서부터 그 주변 일대 즉 조계사 사하촌의 도시계획까지 번뜩이고 현실감각적인 아이디어 100여점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뫼비우스의 띠를 이용한 조계사 설계모형.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뫼비우스 띠의 특성을 활용해 주변 건축물들과 경계가 없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조계사 입구를 램프식으로 개방했다.

또 2층은 작품 전시관, 3층은 의복을 입고 다도를 배울 수 있는 문화 체험관으로 구성했다.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 전용 전통문화관과 전용숙소를 건립한 작품도 있어 조계사가 국제포교의 거점지역임을 재확인 시켰다. 조계사를 3층으로 만들고 1층은 기도 신행공간, 2층은 불자 휴게실, 3층은 불구판매점으로 제작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모형도 등장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역사, 문화, 예술의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체험공간 확보와 주변 지역과 어울린 개방되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 공감을 하고 고마움까지 느끼는 한편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김주일(취재2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예절**

1. 사찰에 가면 대웅전 등 각 전각에 모두 들어가 참배를 하십니까?
   ①대웅전에서만 한다 ②일부 전각에서만 한다
   ③모든 전각에서 다 한다 ④시간 등 형편에 따라 한다
2. 사찰 내에서의 기본예절은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잘 지킨다 ②비교적 지킨다
   ③잘 안 지킨다 ④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다

설문 참여: 7월 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7호 9면에 싣습니다.

구독 신청 (02)737-0090

본사, 해외유수잡지 독점 공급

현대불교신문사가 다음과 같은 해외 유수 잡지사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잡지들은 아시아계 예술분야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본사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많이 구독되고 있는 불교잡지 Tricycle(트리사이클)을 비롯, 동양미술, 철학 종교 관련 영자책을 수입 공급할 것입니다.

- Arts of Asia(아트 오브 아시아)
- Oriental Art(오리엔탈 아트)
- Orientations(오리엔테이션)
- Asian Art News from Hong Kong(아시안 아트 뉴스)
- World Sculpture News from Hong Kong(월드 스컬프쳐)
- Asian Art Newspaper from London, U.K.(아시안 아트 뉴스페이퍼)

이들 잡지,도서에 구입문의는 여시아문(02-732-1512) 또는 인터넷(www.buddhapia.com/eng)으로 하십시오.

월드컵 특집 축구와 禪 6면 / 허딩크와 육바라밀 7면

우리 곁에 혜성처럼 나타나 영가천도를 1~2초에 원격(遠隔)으로 하고 있는 윤정주씨의 놀라운 체험이야기



우리의 육체에서 만드는 氣(마음에너지)와 영혼과의 관계를 밝힌 책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저 자 : 尹 丁 做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의 신체(身體)에서 만들어 내는 기(氣 : 마음에너지)와 죽은 영혼(靈魂)들과의 영원 불멸의 관계를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사의 크고 작은 심신의 아픔과 온갖 우환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의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정보능력에 의한 의식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실 체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놨다.

이 책은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껏 유례없었던 혜성 같은 이야기와 저자의 신비로운 기(氣 : 마음에너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슈 첨 ■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상, 下 각권 값 10,000원

신비한 기(氣 : 마음에너지)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다

사 설

월드컵 4강, 일상에서의 해탈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 사람들은 이를 '6월의 전설'이라 불렀다.

2002 한 · 일 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아직 귓가에는 그날의 함성이 생생하고 마음속엔 붉은 물결이 일렁대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그날'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날을 돌아본다. 너무나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고, 한국의 저력 확인 이상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될 정도의 열기를 보며 맹목적 '국가주의'를 우려하기도 했고 '광기'를 읽기도 했다. 사상 최저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들며 현실 도피적 퇴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결과는 공동체의 확인이라는 소중한 경험으로 귀착됐다. 세계 언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유보 없는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국팀을 응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배타적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였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에게 상대적, 혹은 소아적 '나'는 없었다. '나'를 버림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다.

'나'를 버리는 일, 그것을 곧 해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 월드컵 기간 동안 그것을 해 냈다. 일상에서의 해탈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은 것이다.

'불국토'는 결코 관념의 세계가 아니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 때, 지금 이곳이 곧 그곳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해야

지난 3월에 이어 또 북한산 국립공원 내 관통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법회가 열렸다. 6월 26일 서울 도심 한복판 조계사에서 대회를 열고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한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 행위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그것이다.

국립공원이 무엇인가. 빼어난 자연경관과 자연 · 문화 유산을 길이 보전하자는 지역이다. 요즘같은 삭막한 시대에는 국민의 심신을 달랠 휴식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이에 따른 주택 · 도로 ·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많아지는 이때에 국립공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마저 해제되는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미 노선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행정관행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불교계와 시민 · 종교단체의 뜻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노선을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민들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보전을 도외시하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환경친화적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산은 곧 청정한 도량이다. 불교계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통터널을 뚫는 것을 두고 불교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법난(法難)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대대로 내려온 수행처가 대규모 도로공사로 인해 더 이상 수행공간으로 유지될 수 없는 데 대한 분노이다. 정부당국은 이 점을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 주제 교수불자대회 8월23~25일 백담사서

한국사회 새로운 비전제시

전국의 불자교수들이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23~25일 인제 백담사에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의 제반현상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교수불자들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을 대주제로 열리는 교수불자대회에서는 전야제와 학술 발표 및 토론 외에도 신행 수련을 체험하는 등 심신수양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이번 대회는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학술발표, 25일 암자순례,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술 발표는 '불교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정천구(영산대) · 백경남(동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며, 분과별로 주제발표와 세부적인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분과위는 민족화합의 문제를 주제로, 제2분과위는 정치 · 경제 · 사회, 제3분과위는 과학기술 · 환경, 제4분과위는 교육 · 문화 · 예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윤세원(인천대) · 유승무(중앙승가대) · 구승회(동국대) · 정경연(홍익대)교수 등 저명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연기영 회장은 "불교계 지식인의 활동상을 대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비인가 불교대학 포교사 자격
'품수위'서 자체 선발방안 강구

조계종이 43개 불교대학을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하고 불교대학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비인가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들의 포교사 응시자격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ogyo.org)를 통해 "기존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올해부터는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전국 43개 불교교양대학 졸업자에 한해 부여되며, '신도전문교육기관령 부칙 제4조'에 의거해 기존 불교교양대학에서 2001년까지 입학한 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만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22개 불교교양대학들은 지난 6월 20일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를 창립, '포교사고시 품수위원회'를 구성해 '불교교육능력 평가제'를 실시, 포교사를 선발하고 각 대학을 졸업한 포교사는 출신 대학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불교교육단체연 김재일 공동대표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태고종, 신용카드기능 전자신도증 발급
상황 모바일과 연계 재무·신도 전산관리

태고종음 종단 소속 사찰에 모바일 포교프로그램을 설치, 전자신도증에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국민불자카드'를 이달부터 발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6월 26일 성북구 총무원사에서 (주)국민신용카드사와 (주)지우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국민불자카드' 제휴계약식을 체결, 전산정보화를 위한 통합신도카드 발급에 들어갔다. 지우커뮤니케이션은 태고종에 종단 인트라넷 구축과 함께 '상황 모바일포교프로그램과 MS카드리더기 등 전산정보를 무상 지원한다.

국민불자카드는 상황모바일 포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존의 사찰 재무관리와 신도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도의 법회출석, 축원, 위패, 등표 등의 내용을 한 눈에 알수 있게 된다. 태고종은 '국민불자카드' 발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단의 포교활동 기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경숙 기자

'탈북자대상 포교망 구축사업' 등 9단체

올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6월 27일 2002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공모사업 지원대상 9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는 총 17개 단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 프로그램은 '탈북자 대상 포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조계종포교사단)' '불교생협학교(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대학 네트워크 Lifeshare 등아리 인프라 구축(생명나눔실천회)' '꽃과 함께 하는 청각장애인 직업자활 프로그램(광림사 연화복지원)'이다.

또 '나눔의집과 함께하는 Peace Road(나눔의집)' '사찰환경관리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사찰환경연구회)' '외국인노동자 문화충돌과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경불련)' '시각장애인 무료급식(대광맹인불자회)'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신라불교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신라문화원)' 등이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됐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455명 자격갱신
조계종 포교사단 발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6월 26일 포교사 자격갱신 대상자 1242명중 455명이 포교사 자격을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갱신은 2000년 10월 31일 제정 공포된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자격갱신 대상자 가운데, 포교사단 단원에 한해서 자격 갱신이 이루어 졌다.

포교사 자격갱신은 유효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자인 포교사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불국사·수덕사 승가대학 인가

파계사 승가대는 유보

조계종 교육원은 6월26일 오전 교육원장실에서 제56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불국사와 수덕사 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했다. 그러나 인가대상에 올랐던 파계사 승가대학은 보류됐다. <관련기사 22면>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교역자 자격심사를 벌이고 불국사 강주 응각스님, 통도사 강사 원오스님, 직지사 강사 보명스님, 봉녕사 강사 혜정스님, 쌍계사 중강 무공 스님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교육원은 7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사미 · 사미니)에 대해 의제 특별지도 · 감독을 시행키로 하고, 규정에 맞는 의제를 착용하지 않은 예비승에 대해서는 1년간 비구계 수지 자격을 유보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
8월25일~9월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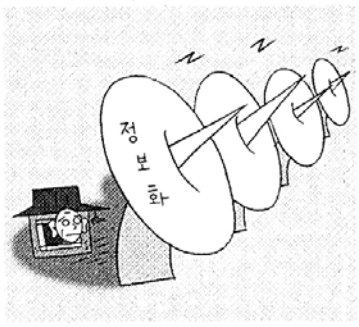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이 8월25일부터 9월16일까지 23일간 열린다. 그러나 개원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6월26일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3기 행자교육원 일정 및 교과목 등을 확정했다.

교과목은 사미 · 사미니 율의, 부처니 생애, 초발심 자경문, 위의문 등 모두 12개 과목이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사찰정보화로 중생구제를…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뛰어난 보도사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온 겨레와 함께,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 미수타 가족일동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한국불교·전통문화 세계화 앞당겨

◇월드컵 기간에 맞춰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전통불교문화 체험사업은 외국인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5월 11~12일 직지사에서 열린 주한 외국사절단 초청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의 숨은 주역은 붉은악마의 질서정연한 거리 응원과 33개 사찰이 한국 전통문화의 본래면목을 세계에 알린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 결산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문화관광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템플스테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용어 번역 등 국제포교기반 구축 '성과'
관련기관 협조 안돼 참가자 적어 … 총 850명
문화부장관 "사찰체험 관광자원화" 지시

정부의 이같은 입장처럼 월드컵 기간에 실시한 템플스테이 사업은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기간, 정부의 부족한 예산(10억7천만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및 한국전통문화의 세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자극제가 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외국인들에게 전통 체험문화 관광의 모델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교용어 번역과 통역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사찰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외국 관광객 및 국민과 신도에게 사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의 선양과 신도들의 새로운 신행형태를 제공하는 사찰수련회 및 주말수련회 등의 상설화를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여론이다.

◑얼마나 참석했나

6월 25일 현재, 전국 33개 사찰에서 체험했거나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중 '월드인' 예약객은 543명. 월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찰을 찾아 체험하고 나간 관광객은 290여명으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관광객은 모두 850여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참여자 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순이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한 사찰은 해인사, 전등사, 약천사, 송광사, 봉도사, 무각사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사찰에서 숙박한 체험자들 외에 사찰 경내를 둘러보거나 다도 등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한 외국인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체험자 반응

체험자들의 대다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취합된 설문지 및 소감문에 의하면 '매우 흡족한 프로그램'이라는 찬사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관문사에 온 캐나다 청년은 "일본 선만 알다가 한국 참선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출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등사를 찾은 캐나다 청년 두 명은 "참선이 눈물날 정도로 좋다"며, "귀국하면 선센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체험자 중 미국의 채식주의자 캘리 여사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전등사, 갑사, 삼광사를 돌면서 각각 2박 3일 정도의 불교문화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캘리 여사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에도 다시 한국을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것"이라며 월드컵 기간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는 월드컵 행사 중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국내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 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 (본지 375호 2면 기사 참조)

◑참가자 부족 아쉬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한 종단협, 사찰, 정부의 원활한 협조관계 및 준비의 부족과 이로 인한 참가자 수 부족을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월드컵 관광객 보다 국내 외국인이 절반 정도 참여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참여자가 10명 미만인 몇 개 사찰에서는 외국인 1~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0여명이 준비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운영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5~10명 이상 단체 접수를 받을 경우 이런 문제점을 해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 차원의 도움은 예약시스템(worldinn.com) 마련과 외교사절단 유치 등 부분적인 선에 머물러, 향후 더욱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했다.

◑아시안게임때 템플스테이

통도사, 범어사, 삼광사 등 부산지역 템플스테이 실시 사찰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때도 템플스테이를 열 계획이다. 나머지 30개 사찰도 템플스테이 상시 체제화에 동감하고 있으며, 예산 수덕사, 강릉 낙산사, 서산 부석사는 추가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6월 30일 마감되는 템플스테이는 마감이후에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부산 삼광사가 포항공대 외국인과 대구 신학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며, 갑사도 10월 21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송광사도 9월부터 독일인 20~30명의 예약을 받는 등 상설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찰은 주5일제를 대비한 상설 주말수련회도 검토 중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찰의 公的기능 정책 반영 절실

국가정보화 사업 소외 – 원인과 대책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500여가지 중점사업을 계획 또는 실시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사업은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 단 한건. 그만큼 불교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소외되고 있다.

불교가 이처럼 국가정보화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된 원인은 지리적 한계 때문으로 요약된다.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정보거점에서 4km를 넘어설 경우 서비스 품질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등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 그러나 국가정보화 사업은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에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짙다.

초고속국가망은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광케이블 중심의 ATM교환망으로 연결하여 행정기관, 학교,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기간망이다. 사찰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문화 거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초고속국가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 한다는 것.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김상부 사무관은 "사찰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일부분 동의한다"며 "현재 국가도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초고속망을 설치해 주지는 못하지만 불교계가 한목소리로 KT(한국통신)에 공식 요청을 한다면 가능할한 일 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사업에 불교가 소외받고 있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불교의 역사 문화적, 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문화의 저변에는 불교문화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국가문화재도 60~70%가 불교문화재일 정도로 불교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나 불교를 한국문화의 근간으로 인정은 하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화 방향을 수립할수 있는 의지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책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김영삼 서기관은 "현재 국가문화유산정보화사업 등 불교와 직간접적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정보화사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앞으로 사이버 석굴암 등 불교자원을 가치있는 정보로 만들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불교계 내부에서도 정보화 마인드를 고양시켜나가는 기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가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우선 단위사찰이나 종단을 이끌고 있는 스님과 재가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정보화 마인드를 가져야한다.

또한 불교의 문화적 가능성을 디지털화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각 종단의 지도층에서도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종책을 수립하는 등 정보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더불어 불교의 자원을 현대에 맞는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불자 기업이나 불교단체 등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불교정보화 사업을 제안하고 불교문화의 잠재가능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소장 보광스님(선학과 교수)은 "동국대는 이미 사이버 박물관을 개설했고 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교단체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국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으므로 불교 제 단체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찰은 지역문화거점 '고속망' 설치돼야"
스님·종단관계자 등 정보화 마인드 시급

◈문화관광부 2003년 문화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사업 분야	주요 추진사업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다국어 사이버 한국문학관 구축
문화유산정보화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문화산업정보화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종합영상자료 DB 개발
관광정보화	관광정보화 사업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체육정보화	국민체육진흥 정보화사업 추진
	생활체육 정보화사업 추진
청소년정보화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도서관정보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
	도서관 정보화사업
정보화여건조성	21세기 세종계획
	저작권온라인 등록시스템 개발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풍산한식銅기와 가격을 대폭 내렸습니다
평당 54 만원에서
42 만원으로 대폭 인하
(100평 기준, 시공비 포함)
· 암기와 : 3,580 → 2,380원 / 장 (33%인하)
세계 최고 품질의 풍산한식동기와를
보다 만족스런 가격에 경험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 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 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풍산한식銅기와는 이런 곳에 시공하면 좋습니다.
◉ 세찬 비바람과 추위로 기와가 날아가거나 동파가 심한 곳
◉ 건물 지반이나 골조가 약해 지붕의 하중을 줄여야 하는 곳
◉ 한국의 전통미와 실용성이 필요한 건물
◉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해야하는 건물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부품 하나 하나마다 새겨진
풍산한식銅기와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풍산한식동기와는 당사 지정 전문시공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풍산지정 전문시공사 보광금속(서울):011-204-6238 / 성원금속(서울):011-445-7811 / 세주판금(청주):011-401-5312
문의 : (주)풍산 건축자재 담당 02-3406-5114, 011-898-9720 주식회사 풍산
www.poongsan.co.kr

일주문



호국영령위령재서 법문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6월 25일 호국금강사에서 열린 19회 호국영령 위령재에서 영가천도법문을 했다.



민추본 창립 2주년 기념식

정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6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립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포교사회 지도위원장에

선업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 회장은 6월 14일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 경남 포교사단장

최덕수 포교사는 6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부산 경남 포교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풍경소리 이전 현판식 봉행

덕신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는 3일 견지동 길상원 2층 사무실에서 이전 현판식을 봉행한다.



신부전증 투병 김옥자씨에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6월 17일 서울 사무실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김옥자 씨(25)의 사촌 언니 김영희 씨에게 수술비 5백11만7천원을 전달했다. 이날 김 씨는 "생면부지인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 고마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몸이 회복되면 할머니 모시는 것도 열심히 하겠다"는 동생의 말을 대신 전했다. 손양호 이사(오른쪽)가 김 씨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고 침 본지 제375호 4면 '6·13 지방선거 불자당선자 8인' 기사 중 정증훈 시흥시장을 '정증흔'으로 바로잡습니다.



"회원 불교교양대학간의 활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정 종단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범종단적 연합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회' 빠른시일내 사단법인化"

불교교육단체련 김재일 공동대표

6월 20일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공동대표로 추대된 김재일 법사(동산불교대학 이사장 · 사진)는 "빠른 시일 내에 연합회를 사단법인화 하겠다"며 "불교교육에 관심 있는 불교교양대학이나 불교단체라면 회원단체로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은 스님(해동불교대학 학장), 한정섭 법사(불교통신대학 이사장)와 함께 추대된 김 대표는 포교사 양성 방안으로 연합회 내 '포교사고시품수위원회'를 구성, 회원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불교교육능력평가제(가칭)'를 통해 선발키로 하고, 교재 개발 및 번역 출판 등을 담당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발족한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협의회'와 관련, 김 대표는 "연합회는 조계종 협의회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언제라도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겨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창립된 연합회의 회원 대학은 대전 보현불교대학, 불교통신대학, 해동불교대학, 금강불교대학 등 총 22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정률스님, 수녀회 종신서원식서 축가



◇성바오로딸 수녀회 종신서원식서 축가를 부른 정률스님.

성악가 정률스님이 6월 27일 서울 성바오로딸 수녀회 종신서원식에 초청돼 축가를 불렀다.

종신서원식은 불교의 비구(니)계 수계식과 같은 의식으로 '이 몸 다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약속하는 가톨릭의 의식이다.

정률스님은 지난 1999년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 활동을 계기로 수녀들과 인연을 맺었으며, 그동안 서로의 활동을 격려해 왔다.

이날 서원식에서 정률스님은 부처님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담긴 찬불가 '향심'을 독창하고,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들의 앞길을 축복했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보광스님, 고아원 건립기금마련 서화展

금강경 사경작품 등 61점 전시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과 노인들을 위해 출가자로의 삶을 회향할 생각입니다."

서화가 보광스님(김제 태고종 금선사 · 사진)이 6월 23일~30일 전주 코아호텔 1층에서 고아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금강경〉 〈반야심경〉 등 사경작품과 관음도, 달마도 등 불교적 정서를 담은 선서화 61점을 선보였다.

"진정한 불자라면 법당의 부처님만을 모시려 말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내 주위의 산 부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스님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복지불사에 동참할 후원회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011-9626-2101)

백혈병 재발… 치료비 없어 애태워

불자 간종대 씨 경전 읽으며 투병중



도와주세요

폐렴으로 백혈병이 재발한 40대 불자가장이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000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간종대 씨(41 · 사진)가 지난해 10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다른사람의 골수를 받아 이식수술을 했지만, 올 4월 거대 세포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다시 백혈병이 도져 투병 중에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 중인 간 씨는 무직 상태로 마땅한 수입원조차 없는 상태다. 아내 연 씨가 생활전선에 나가려고 해도 남편의 병간호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생활 자체가 막막하다. 2천여만이 넘는 치료비와 수술비는 1천5백만 원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간 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들어 간 씨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며 조기 퇴원까지 고집하고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주 신륵사에서 신행활동을 열심히 해온 간 씨는 병상에서도 경전을 머리맡에 두고 아내를 위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농협 계좌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김철우 기자



◇6월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대법회에서 불자들이 사경에 몰두하고 있다.

법화경 사경대법회 봉행

Focus

제주 평화통일 불사리탑사(주지 도림)는 6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세계법화경 사경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정법중흥과 조국평화통일, 세계인류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법회에는 국내 서예계 원로작가와 초대작가 등 7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사경한 법화경은 8월 14~16일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사에 봉안된다. 또 이날 서예가 600여명이 쓴 한글서예 법화경 작품을 책자로 출간하고, 세계불자들이 사경한 법화경 108권과 함께 봉정식을 거행한다. 한글서예 법화경은 충북 천안시 소재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 조성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진각종, 신행수기 당선자 시상식

진각종은 6월27일 총인원에서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신행수기체험담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믿음과 수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는 것이 회당 대종사 탄생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에 당선된 일선정 보살 등 당선자 6명은 상장과 부상 등을 받았다.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수륙천도재

부산 약천사(주지 법인)는 6월 25일 다대1동 수협공판장에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수륙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남파종 종정 혜응스님, 사하불교연 회장 자인스님을 비롯 3백여 명이 동참한 법회는 천도의식과 법문으로 진행됐다. 혜응스님은 "아시안 게임은 사하와 부산 불자들이 합심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은 6월 22~23일 강남 봉은사에서 '제29차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가졌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 청소년 지도교사, 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운광스님은 "어린이 전법에 서원을 세운 만큼, 새싹불자들이 불국정토의 올곧은 주인공으로 자라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불자련,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6월 26일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제15회 자원봉사시민대학 수료식' 및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전문봉사 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 교육'이란 기치아래 교육받은 50명은 3개월간 자비수지침, 파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봉 미륵대불 금강도덕법립 성탄절 축

억조창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이 중앙무기오십토운(中央戊己五十土運)으로 지구촌의 중앙인 한반도에 돌아오니, 세계 인류들이 몰려 와서 월드컵의 축제를 벌이고, 미륵부처님의 천지인 삼법이 이루어지는 이인횡삼십이월록(二人橫三十二月綠)이라, 인천(仁川)과 부천(富川)의 중간이 되는 송도(松島)에 용화세운(龍華世運)으로 진인께서 도덕진리로 만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니, 인천시에서 36天의 천운으로 단군자손들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으니 이 신비하고 오묘한 신부지(神不知) 용화세상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나 사는 것이 아니며, 구세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는 종교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미륵부처님 일월도덕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연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성취가 어려울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여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건만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운이 다한 말세종교의 말만 알아듣고 편하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창조주 천지님께서 대자연의 절후 속에서 원형이정으로 만물을 생성하여 살리시듯이 후천 용화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륵부처님께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배합하여 운행하는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정명하고 건운곤복(乾運坤福)으로 만중생을 먹이고 입히어 살리시고자 법고를 울리고 계시니, 오만대운의 새로운 성운으로 태양같이 떠오르는 구세주 미륵부처님 인연을 찾아, 칠대 조상부모님을 이고득락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며 어두웠던 자손들의 앞길을 밝게 열어 곤난과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안 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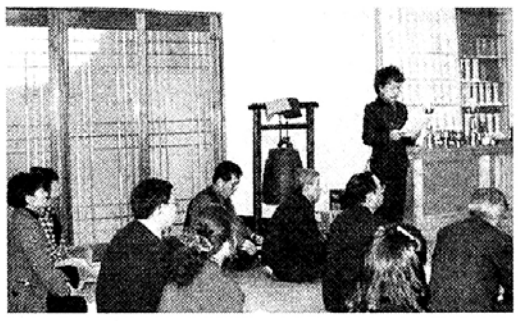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번지
- 전 화 : 032-832-0626 / 팩스 : 032-831-8967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총무원
- 후 원 : (재)대도문화재단, (사)미륵종교협의회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춘천시청 도반회 임원진 선출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는 6월 26일 춘천 사북면 현지사에서 정상현 회장과 진옥균 사무국장을 유임하는 한편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은 김경희 총무부장, 김영원 수행부장, 우춘수 포교부장, 최금선 봉사부장 등이다. 이번 임원 선출은 창립 2돌이 되면서 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도반회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석불문화연구회 석불사진전

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석불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그동안 답사에서 회원들이 카메라에 담은 석불 작품사진과 탁본, 조각품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7월 14일 경기도 수원 화성과 일대 석불을 찾아 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10주년 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유보현화)는 6월 22~23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에서 4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는 1992년 창립 이후 취미별, 연령별 모임과 지역별 모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 왔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한국중공업·한일합섬등 취미별 소모임 운영

직장불교단체 활성화 큰기여

한국중공 8개모임 활발…가족법회·상조회 자생
한일합섬 참선·요가·시다림등 신행형태별로
우리은행 시행착오 거쳐 정착…6개 권역 나눠

취미, 직급별 소모임 활동이 직장불교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쁜 일과와 고단한 업무로 시달리는 직장인불자들에게 소모임 활동은 개인의 동기 부여는 물론 전체 모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우애도 한층 강해져 회원 결속 효과도 얻고 있다.

직장불교단체들의 소모임 운영은 회원들의 감소현상과 저조한 참여도를 극복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된 경우가 대부분. 실제로 한국중공업 법우회, 우리은행 불자회, 한일합섬 한일법우회 등은 현재 소모임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중공업 법우회는 이웃돕기, 음성공양, 서예, 등산, 도자기, 가족법회 등 8개 소모임을 운영하며 1백명이 넘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법회 참석 인원이 많아지면서 회원간 유대감이 약해지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취미별 스모임 운영을 시도한 사례다. 법우회 내 소모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회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가족법회와 상즈회 등도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등 회원간 유대가 크게 개선됐다.

법우회내 이웃돕기 모임인 '함께 가는길'의 경우 경남 고성 옥천사 청련암 브리수쉽터와 밀양수산 자림원 등 경남지역 불교사회복지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있다.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함께 가는길은 법우회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회원들의 동기를 유발해 모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산불자회도 양산애육원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봉사모임을 운영,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일합섬 한일법우회는 참선, 요가, 시다림 등 8개 소모임을 운영, 회원 개개인에게 맞는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 사례다. 한일법우회는 회사 후원 감소와 퇴직자 급증으로 회원 감소현상이 두드러지자 신행형태별 소모임을 운영했다. 한국중공업 법우회와는 상반되는 경우다.

회원 또는 인근 불자 가정의 장례식에서 염불 봉사를 펼치는 시다림 모임은 강사를 초빙해 의례와 절차 등을 배우고 자체적으로 수개월의 연습을 거치는 등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불교의식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시다림 모임은 다른 회원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는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며 소모임을 정착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1백여명의 회원이 서울지역에 고루 퍼져 있는 분포 특성에 따라 3개 권역, 다시 5개권역으로 지역별 모임을 운영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지역으로 분류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르지 않자, 근무지와 집의 위치를 고려한 6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직급별 모임을 구성해 정착시키고 있다. 이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5~6명 내외의 취미별 소모임으로 세분류할 계획이다.

한국중공업 법우회내 함께 가는길 전경도 회장은 "불자회내 소모임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유대감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전국금융단불교회 합동수계

법명갖기 일환, 16~17일 성남 장경사서

금융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실한 불자로 살아갈 것을 부처님 앞에 서약한다.

전국금융단불교회(회장 이탁수)는 16~17일 성남 남한산 장경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16일 오후 9시 입재를 시작으로 540배,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경, 새벽예불 등 철야정진을 갖은 후 수계의식을 진행한다.

법명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수계의식의 계사로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덕신스님이 나서며, 이날 법회에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서울은행, 우리은행 불자회 등 금융단 불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탁수 회장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진실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금융단 불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새로운 법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와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주최로 6월25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호국기원대법회 모습.

은평구불심회 호국법회 장학금·표창패 수여도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와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호국기원대법회'를 열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도했다.

올해로 14회째인 이날 법회에서는 또 은평구 상이군경회 자녀, 대한군경전몰유족회 자녀, 모범공무원 자녀 등 17명에게 은평불교사원연의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은평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 모범불자 23명에게 구청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날 법회는 은평구 지역발전과 종교간 화합을 위해 은평구청에서 법회를 주최해 불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법회를 주관한 불심회는 종교를 초월해 은평구청 공무원과 은평구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종교간 화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암의 꾸준한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모범적인 직장불교회로 운영해 왔다. 특히 은평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불자간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했다.

서울 강서·중구불자회 이달창립

회원모집 홍보활동·4년 공백 딛고 반야회 재창립

전국의 직장에서 불교단체 창립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청과 중구청에도 불자회가 이달 중순경 창립된다.

서울 강서구청 불자회 창립준비위(위원장 유흥근)는 6월 24일 구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7월 중순경 창립총회와 법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9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는 유흥근 창립준비위원장과 황귀현 총무를 선출하는 등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창립일은 구청 일정을 감안해 확정하지 않았다.

강서구청 불자회 창립준비위는 구청내 인터넷게시판을 활용해 구청 직원과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고 회원 모집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중구청 반야회(회장 김용중)는 6월 20일 필동 총정사에서 20여명의 직원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재창립을 선언했다. 4년전 활동이 중단된 반야회는 7월중 3기 민선 구청장 취임을 축하를 겸한 법회를 열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사단, 조계사 신도회와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현·퇴직 불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과 구청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를 시작했다.

중구청 반야회 재창립을 주도한 연성오 호적전산담당팀장은 "직장내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계 종단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장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부산 영도구청 법우회 성지순례

부산 영도구청 법우회(회장 유춘희)는 16~17일 여수 향일암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난다. 회원 및 가족 80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순례는 영도구 불자들은 향일암에서 새벽예불과 일출을 관람한 뒤 순천 선암사를 참배할 예정이다.

불자약사보리회 백경숙 회장 취임

불자약사보리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묘공원 봉사현장에서 백경숙(서울 제기동 지예당약국) 약사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불자약사보리회는 서울역 노숙자와 파주 스리랑카 노동자, 서울 종묘공원 노인들에게 무료투약을 실시해 왔으며, 2일부터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화·목요일 무료 투약을 실시한다.

KBS 불교연구회 육조단경 강좌

한국방송(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휘)는 6월 29일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육조단경 강좌를 열었다. 30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좌는 인오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좌가 끝난후 동참자들은 젓심공양을 같이 하며 우의를 다졌다.

불교 영산작법 전통범패의식교육

불교영산의식에는 상주권공, 각배,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륙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안채비와 겉채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겉채비는 불교의식무인 춤의 일종요, 안채비는 불경에 고화사를 찍어 높고 낮음의 소리를 잘 지어서 불보살님께 올리는 정성어린 영산회상 입니다. 여법하게 잘 갈고 닦아 의식다운 의식을 진행하므로써 중생들의 환희심과 공덕은 물론 일체 유주무주까지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보배스러운 의식입니다.
이번 호남불교전통의식대 학장 혜공스님은 서울 봉원사 범음대학을 제2기로 졸업하고 범패의식을 전문으로 연구하며 전국에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우리 범패의식을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까지 알리고자 이번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내용
시련의식, 관욕·대령의식, 신중작법, 각종 불공의식, 시식의식, 화청(회심곡) 사물다루는 의식, 상주권공 재의식, 겉채비(바라춤, 도량게, 다게춤)의식 등

■일 시 : 양력 7월 19일부터 7월 23일 (음력 6월 10 ~ 14일)까지 (4박 5일)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759-14 (시교육청앞 불교전통의식대학 본당)
■접수기간 :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선착순 00명)
■교 재 비 : 교재비 숙박포함 15만원(전통의식의범 별도)
■교 수 진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전수자 노혜공스님(조교 : 정봉, 인봉, 태봉, 영축회원 일동)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녹음기, 바루, 비디오가능, 가타
■교육대상 : 스님, 포교사, 교임(일반불자도 가능)
■주 최 :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영축회
■후 원 :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수영사 신도회, 영축회, 각 사암, 묘음회, 자비회, 원효회, 삼일회, 연화회

※ 서기 2002년도 하반기 교육 : 양력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4박 5일) 실시예정

교 육 일 정 표

날 짜	시 간	교 육 내 용	교수진
7월 19일	오전10:00~11:00 오후 2:00~ 5:30 오후 7:00~ 9:00	입소식, 시련강의, 오시불공 실 습 촬향, 등게, 정례녹음(요잡바라)	혜공스님 제 자(조교)
7월 20일	오전 6:00 오전 8:00~11:30 오후 2:00~ 5:30 오후 7:00~ 9:00	무등산 중심사 참배 대령관욕, 대령소, 곤욕소강의, 오사불공 실 습 장혼, 지옥게, 왕생게 녹음, 천수바라	혜공스님 제 자(조교)
7월 21일	오전 6:00 오전 8:00~11:30 오후 2:00~ 5:30 오후 7:00~ 9:00	화순 쌍봉사 참배 신중작법, 39위 강의, 오시불공 실 습 합장게, 고향게 녹음, 사다라니	혜공스님 제 자(조교)
7월 22일	오전 6:00 오전 8:00~11:30 오후 2:00~ 5:30 오후 7:00~ 9:00	무등산 원효사 참배 각종 불공의식 강의, 오시불공 실 습 개게, 세수게, 목청게 녹음, 도량게, 다게	혜공스님 제 자(조교)
7월 23일	오전 5:00 오전 8:00~11:30 오후 2:00~ 4:00	영광 불갑사 참배 상용영반, 관음시식 강의, 오시불공 실습, 수료증, 회향	혜공스님 제 자(조교)

▶시간은 일정에 따라 약간 변경 될 수 있음
▶혜공스님 교육테이프 판매
· 관욕대령
· 상단, 상주권공
· 전통종성 · 아침에불
· 회심곡(화청 1, 2)
· 부모은중경 등
의식교육비디오 출시예정

※ 범패에 소질이 있으신 분께는 교육비면재와 의식의범 증정(2명)

➜ 쉽게 찾아오는길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 그린마트 맞은편 3층

접수전화 062)362-8604, 011)624-8604, 011)614-8604

목어 공정함에 대해



위인전을 읽다보면 그들의 남다른 구석을 발견하게 된다. 정글의 성자로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는 어릴 때부터 몸도 크고 힘이 장했던 모양이다. 친구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진 일이 없거니와 어느 날 이웃 골목대장과 한판 승부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겨루기에서 진 상대편은 "내가 진 것은 너처럼 매일 맛있는 수프를 먹을 수 없어서다"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수프를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소년과 그럴 수 없는 소년의 대결이 공정할 수 있을까. 슈바이처는 여기서 공정함과 불공정함에 생각이 미쳤고 그 후 스스로 공정함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평생을 바친 원시 아프리카에서의 의료활동 역시 '공정함'에 대한 성찰의 결과였을 것이다.

'공정함'이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과는 다른, 동물보다 한 차원 높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정신적 진화가 가져 온 단어일 것이다.

한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는 '키워드'라 부른다. 부정 부패가 우리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요즘, '공정함'이 이시대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의 중요함은 이미 드러나 있어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기관, 아니면 그 주변단체에 '공정'이란 간판을 단 곳이 있다. 기업경쟁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공정함'을 감시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려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정무역이니 공정 배분이니 하면서 '공정함'의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 어쩌면 밝은 미래세계를 여는 키워드로 인류는 이미 '공정함'을 택했는지 모른다.

'공정함'이 흔히 키워드가 갖는 주술적이고 자유정신을 속박하는 행패만 부리지 않는다면 미래를 푸는 단어로 그만한 것도 없다 싶다.

지난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우리는 '공정함'에 대해 배웠다. 페어플레이를 앞세우는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함이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문제되는 지를 보았다. 그 '공정함'을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 잘 실현시켜 나가느냐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직업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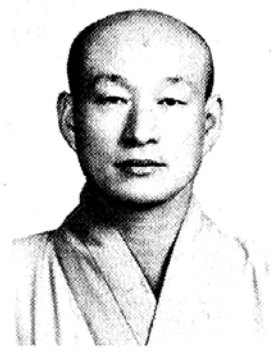
불교가 직업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127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55명(43.3%)의 불자들은 별 상관없다. 39명

"불교 큰 영향 안 준다" 43.3%

(30.7%)은 주는 편이다, 28명(22.0%)은 상당히 준다, 5명(4.0%)은 전혀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직업선택에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1명(55.9%)이 받지 않았다, 31명(24.4%)이 조금 받았다, 25명(19.7%)이 많이 받았다고 답변해 불교가 직업선택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연태 기자



축구와 禪

설곡스님 특별기고

거의 한달 간 온 나라가 월드컵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 경기장에서만 열기를 뿜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마치 축구를 위해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듯 했다.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본선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한국 축구가 16강, 8강,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축구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하여 세계 열강 속에서 당당히 4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를 영입할 수 있었고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축구와 선(禪)의 세계. 이 둘은,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 것에서 닮은 꼴도 발견되지만, 사실 지향하는 바나 성취 후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동적(動的)인 것의 극치인 축구와 정적(靜的)인 것에서 출발하는 선의 세계는 무엇이 어떻게 닮았을까.

주지하다시피 축구는 영국의 산업노동자들 사회에서 생겨난 운동이다. 산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적 피로를 풀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것이 축구였다.

축구는 순수한 스포츠로 시작했다. 진정한 스포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외에 즐기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 운동이다. 그러나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경과 인종, 빈부와 성별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축구가 16강에서 8강으로, 다시 4강으로 오르며 세계의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는 동안 묘한 심정이 들었다. 마치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정신세계는 완벽한 집중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들이 그 순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정신의 경계는 무심(無心)이라 해도 좋다. 공을 찬다는 그 행위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몰입만 남아있는 무심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할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겨달라고 주문하며 국민들은 열광했지만, 혹 그 너머에는 몰입의 무아지경이 주는 아름다움을 즐긴 것은 아닐까. 일념(一念)의 상태에서 경기에 몰두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훌륭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선(禪) 수행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려고 혼신을 다해 정진하는 모습과도 상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념으로 경기에 몰두하는 선수는, 진리와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모아 혼신을 다해 정진하는 선수행자의 모습과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은 6월18일 월드컵 16강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들 사이에서 공을 줏는 모습. 사진제공=조선일보

박지성 번개슛, 문수 '지혜 검' 번뜩이듯 안정환선수 헤딩골 순간은 무념무상 상태

어시스트-인연의 도리, 잇단 반칙·눈속임-집착

참선은 삼매를 지향하여 수련한다. 삼매란 한가지 일에 몰두하여 다른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날 겨를이 없는 일념의 상태를 말함이다. 선의 세계에서 무심삼매(無心三昧)라고 말할 때, 무심이란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가지만 한다. 이 꽃은 예쁘다 아니다, 이 색은 좋다, 나쁘다 하며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행자가 삼매에서 꽃을 보면 꽃만 있고 사람은 없다. 즉 보는 사람이 꽃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수행자의 마음이 무심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무심이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분별이나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

사실, 사물을 볼 때 무심하지 않으면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아니다. 보는 자의 생각이 있을 뿐이다.

만약 선을 수련한 사람이 축구를 하면 경기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경기의 흐름에서 경기와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훌륭한 축구선수는 마치 선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선사(禪師)와 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그와 축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경기때, 종료 몇 분을 남겨두고 상대 선수와 우리 선수가 뒤얽힌 상대 골문 앞에서 안정환 선수가 머리로 공을 맞출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상태였을 것이다. 동료선수의 발에서 날아오는 볼의 공중거류 시간은 1초도 되지 않는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선지식과의 법거량에서 질문이 떨어지자 마자 주저없이 답을 던져야 하는 선사의 순간적 지혜와 같을 지도 모른다. 망설임이나 책임회피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는 오로지 혼신을 다한 최선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과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의 한 골 역시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왔다. 찬스의 순간, 전광석화와 같은 결정적인 슛을 날린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문수의 예리한 지혜검이 섬뜩 빛나는 것과도 같아 보였다. 그러니 그 동작은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보는 관중은 환호하지 않을 수 없다.

골을 성공시킨 순간의 아름다움은 비록 한 동작의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성공시킨 동료들의 수많은 동작들의 도움이 그 한 동작에 숨어있다. 그것은 인연의 도리와 같다. 인연의 한 단면은 목전(目前)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민과 전체 아시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마음을 모아 하면 어떤 일도 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본래 축구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운동으로서의 목적보다 승리에만 목적을 둔 나머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는, 집착과 욕망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아쉽다.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 뒤에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다. 스타 선수들의 몸값은 천문학적 숫자가 되어버렸다. 돈과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반칙과 눈속임, 거친 욕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집착이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했다. 그러한 집착이 오늘날의 축구를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는 거리가 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시합에는 어차피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경기를 하면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의 집착에만 빠져 있다면 경기에는 이겨도 진정한 승리는 아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금강경〉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조용하게 메아리친다.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는 가운데 오로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구미영명사 주지>

공 고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본(사)군불교진흥회에서 시작하여 금년으로 제 6 회를 맞이한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운동이 사부대중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에 힘입어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기2546(2002)년 부처님오신날 위문품 보내기 운동"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입 부		지 출 부	
강화사암연합회 9,600,0000 정각스님 5,000,000 영도건설 3,300,000 조광피혁 2,800,000 지문스님 2,500,000 무명인 2,000,000 진각종 2,000,000 오현옥 1,660,000 원광사 1,500,000 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문회 1,200,000 이우경 1,200,000 자용스님 1,000,000 운월스님 1,000,000 국순려 1,000,000 김명숙 1,000,000 법사종 1,000,000 석불사신도회 1,000,000 (재)성라원이사장 · 재일조계종이사장 석태연 외 152명 동참 조계종 봉축위원회 콜라 8,910캔 수국사 쌀 20kg 50포		항 목	금 액
		◈ 박스 (大 · 小박스)	7,000,000
		◈ 쵸코파이 외(과자, 음료수)	27,102,000
		◈ 소책자, 봉투 등	5,700,000
		◈ 합장주, 호신불	5,631,000
		◈ 식대 및 작업비용 (스티커,군인간식, 발송비)	1,715,228
		◈ 광고비	300,000
		◈ 결산안내인쇄 및 발송비	100,000
		◈ 잔액	1,939,772
총 계	₩ 49,488,000		₩ 49,488,000

※ 예산관계상 광고에 소액동참자들을 게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참하신 분들께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역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02-749-5135)

□ 부탁드립니다 !

명예회장 박상길, 명예부회장 이병문, 회장 석정각, 수석부회장 한자용, 이사 지문스님, 운월스님, 남윤스님, 이건호, 국순려, 김명숙, 기획이사 백승진, 감사 최우진, 류권홍, 사무국장 이하전 사무원 반야심, 방제상 등이 본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본법인은 군불사 및 법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임직원이외에는 화주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없는 바, 본 법인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알려드립니다 !

본 (사)군불교진흥회의 임시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이사님 제위께서는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6(2002년) 7월 8일(목) 12 : 00시
◈장 소 : 국방부 호국원광사내 (사)군불교진흥회 사무실
◈안 건 : "군장병불자 위문품 보내기" 결산보고 외 기타의 안건

□ 감사합니다 !

저희 (사)군불교진흥회는 군장병불자들의 신행과 군법사님들의 보살행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 군불교진흥회장 석 정 각 합장

◈추가 : 육군 12,604개 해군 3,810개 공군 760개를 65여곳 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불교교양대학 및 불교교육단체 등록 안내공고

불교교양대학이 도시는 물론 산사까지 활발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알리고 신행생활에 도움되고 있으며, 한국불교 발전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0일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한 불교교육단체 연합회를 성황리에 창립하고, 연합회 가입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등록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2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대 상** : 불교교양대학 및 기타 불교교육단체
■ **목 적** : 1. 불교정보(교재,교수)제공
2. 교재공동번역
3. 교양대학간 협조지원사업
4. 불교교육단체보호업무
※**특 전** : 등록된 불교대학 졸업자는 불교교육능력평가를 통하여 연합회포교사 품수
■ **문 의** : 사무국 02-734-9595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한정섭법사(한국불교통신대학장)
정대은스님(해동불교대학장)
김재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

히딩크 리더십 = '육바라밀'

지금 한국사회는 온통 히딩크 열풍에 빠져있다. 기업과 연구소 할 것 없이 '히딩크식 경영'과 '히딩크식 리더십'을 열창하며, '히딩크식 성공 키워드' 찾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히딩크 효과를 분석하는 숱한 전문가들은 히딩크의 열정, 즉 철저한 수행자와도 같은 삶의 방식과 철학을 놓치고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히딩크의 성공요인은 육바라밀과 일치한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가지 실천덕목을 철저히 행한다면 누구나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육바라밀. 히딩크의 저력은 곧 육바라밀행이었다.



보시 믿음 바탕 비전 · 자신감 선물

히딩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전술을 아낌없이 전수했고,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선수들에게 심어 주었다. 히딩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는 '다르마(Dharma)'의 법칙을 인식시켜 주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단순하지만 정법의 이치.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늘 강조한 것도 스스로의 정신세계(이길 수 있다는 신념)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축구에 대한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법'을 선수들과 한국축구에 아낌없이 베푼 셈이다.

참된 보시란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이다. 히딩크는 폴란드 전을 승리로 이끈 뒤 국민적 우상으로 떠올랐다는 평가에 대해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할 뿐이다"며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한국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도, 자신이 그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우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줄 것을 다 주었다"고 얘기함에도 정작 그는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욕 '안티 히딩크' 비난도 묵묵히 대응

불과 1년 전 프랑스, 체코와의 경기에서 5-0으로 대패하고 '오대영'이란 별칭을 얻었을 때도, "베스트 일레븐 선정이 시급한데 언제까지 실험만 할 것인가"라는 비난 속에서도 히딩크는 단 한마디, "뜻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꾹 참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회의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안티 히딩크'를 부르짖는 사이트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그러나 히딩크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묵묵히 실천해갔다. 그리고 무대가 펼쳐질 날만을 기다렸다. 배우는 오직 연기에만 몰두하면 되는 법. 경봉스님은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연극이 끝난 뒤 웃을 수 있는 배우가 되길 원했다. 세간의 비난을 뒤로 하고 눈짓, 몸짓, 마음까지도 명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감동적인 연기로 모든 이들을 환호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무대 뒤에는 많은 좌절과 고비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 인내하지 않으면 괴로움과 번뇌(축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 히딩크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선정 "평상심 유지하라" 집중력 강화

이을용과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도 히딩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단지 '경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경기 내내 그는 안정을 잃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집중을 요구했다. 히딩크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경기를 지배한다'는 것은 안정과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는 훈련에서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 그것도 각기 다른 점수 차의 상황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유지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마인드 컨트롤로 집중력을 강화시켰다.

미국전과 이탈리아 전에서 한국은 선취점을 먼저 빼앗기고도 무승부와 승리를 일궈냈다. 예전의 한국축구라면 일시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달랐다. 선수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전에서의 히딩크의 용병술은 흡사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힘으로 '승리'라는 화두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수들과 히딩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전 패배직후에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며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지계 선수선발 · 훈련 일관된 원칙 적용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법칙, 히딩크의 그 법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히딩크는 우선 선수선발에서부터 모든 선수에게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이행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타성과 관성에 젖어 있던 한국 축구계의 구습을 타파하고 자신이 세운 원칙으로 맞섰다. 이것은 히딩크가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명제에 제시한 일종의 계율이었다

히딩크는 한국축구에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다. '기초체력'이 부실하고서는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체력훈련에만 비중을 둔다'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원칙을 지켜나갔다.

연습 때와 경기 때는 선후배 선수들 간에 '반말'을 하도록 규율을 정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믿었고, 선수들은 그 룰을 충실히 따랐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 대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것(대자유=승리)이다. 그리고 그는 원칙(지계)을 철저히 지킬때 마침내 목표(성불)에 이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진 작은성공 경계 '큰 꿈' 향해 도전

'어떻게 하면 1승, 16강을 달성할 수 있을까.' 히딩크가 이 명제를 풀기 위해 선택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원칙과 소신, 그리고 자신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히딩크는 선지식들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꾸짖듯이 "조급해 하지 말되, 최선을 다하라"고 선수들에게 늘 강조했다. 모든 것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있고, 때가 되면 저절로 익을 것이라는 확신. 혹독한 체력훈련 등 전력강화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히딩크는 월드컵 개막 50일을 앞두고 "지금은 16강 진출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하루에 1%씩 높여가겠다"고 말했고, 20여일 뒤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지켰다.

히딩크는 16강전, 8강전, 4강전을 앞두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에겐 더 큰 꿈이 있다"면서 1승과 16강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고, 4강전에서는 독일에 패하고도 "우리의 꿈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정상을 향한 집념과 의지, 그것은 해탈을 향한 구도자의 끊임없는 열정과도 같은 것이다.

반야 '나와 남' 분석 치밀, 합리적 용병술

히딩크가 "한국축구는 기술보다는 체력이 문제"라고 진단했을 때,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체력보다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이다.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장 단점과 상대할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다.

또 선수들 각각의 인성을 면밀히 파악했고, 세계 강호들과의 평가를 통해 냉혹한 자기평가를 했다. 훈련에서는 철저한 과학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히딩크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준비는 경기에서 그대로 빛을 발했다. 경기의 흐름과 상대를 읽는 용병술이 빛났고, 세계는 그의 '혜안'을 칭찬했다. 지혜란 생명과 사물의 본질을 체득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 적어도 축구에 관한 한 히딩크는 '깨달은 자'였다.

한명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 한문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우리춤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2년 6월 15일 ~ 2002년 8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화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 장 소 :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40,000원(염불조끼교재및식사재공)
◆ 교 통 편 : 개인별 미황사 15일 오후 2시까지 도착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국민은행 : 023-21-0667-309 : 염불만일회
농 협 : 053-02-128104 : 염불만일회

(서울, 경기지역 출발안내)
◆ 출발장소 : 서울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2년 8월 5일(월)오전 6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 교통비포함) 65,000원을 미리접수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④



그림 · 문병성

'불교 가장 과학적' 편견 버리기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는 것을 내세울 때 중세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지구 중심의 천동설과 16세기 혁신적인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과의 충돌을 내세우며 논지를 전개해 가는 글을 접해왔다. 한편 과학의 진보를 통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들어 불교가 우월한 종교라는 편견은 버릴 때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독자 분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을 좀더 냉철하게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겠다. 비유를 들면 야구 경기의 규칙을 전혀 모르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종범이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하다가 협살 당해 죽었다"라는 야구 경기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옛날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경기를 연상하며, 야구는 목숨을 걸고 하는 매우 잔인한 경기로 오인할 것이다. 사실 많은 불교인들이 기독교에 관해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역으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같은 이유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는 불교 안에서도 각 종파 아니, 범위를 더 좁혀 각 문중 사이에도 철저한 수행을 통해 내려 놓아야할 우열이라는 이원적 분별과 편견 속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음을 언론 매체나 글들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중세 기독교의 4원소설(우주의 구성원소는 흙, 물, 불, 공기라는 학설)이나 지구 중심의 천동설은 다만 고대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것이지 성경 해석으로부터 확립된 교리적 차원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덧붙여 얼마 전 고3인 둘째가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독실한(?) 개신교 친구가 자기에게, "시험 정답은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진화론이라고 답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창조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점수가 깎일 줄을 알지만 창조론이라고 답했다"라고 했다고 필자에게 전한 적이 있다.

가톨릭 천문학 이용 16세기말 中상륙
당시 동양사상 첨단과학 앞에 맥 못춰

한편 동양권에서 과학과 관련된 '물리(物理)'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동양 사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의 이치를 밝혀 본 뜻을 분명히 한다)'라는 말에 그 어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16세기말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국 천자를 가톨릭 신자로 개종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자 신부인 예수회 소속 마테오 리치 신부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는 관측천문학이라는 당시의 첨단과학으로 무장하고 중국에 도착해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우선 유생들에게 서양의 우수한 과학을 알림으로써 가톨릭에 대하여도 참 진리의 종교라 생각할 것으로 믿었다. 당시까지 중국에서는 오늘날 불교인들이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교가 유교와 더불어 중국사회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천문학 서적에 의거해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방형이며 세상 만물은 화, 수, 목, 금, 토 다섯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천문학은 길흉을 점치는 점성학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불교인들은 나한(羅漢)이 오른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왼손으로 달을 가릴 때 월식이 생기는 것이라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치 신부는 찾아오는 사대부들에게 지구의를 보여주며 지구는 둥글며 자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흠천감(欽天監: 오늘날의 천문대)의 예보보다 더 정확히 일식을 예측하는 등 천체의 운행에 관해 정확히 예견하자 리치 신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회 신부가 흠천감의 대장이 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종교와 과학은 벌개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당시의 첨단과학이었던 천문학을 도구로 관직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예수회 신부가 중국 땅을 밟은 지 150년 만에 드디어 천자를 직접 알현하고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만 보면 동양 사상은 첨단과학(천문학) 앞에 맥을 못추었으며 당시 지식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적지 않은 사대부들에게 가톨릭이 동양 사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던 환원주의적인 서양과학이 파생시킨 인간소외, 환경오염, 생명윤리 등 문제점들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종교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남성영역에 우먼파워 우뚝

월드컵과 여성

월드컵 기간 동안 거리 응원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여든 '붉은 악마' 중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었다. 또한 한국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 회원 11만명 가운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응원뿐만이 아니다. 월드컵 열기를 타고 서울 은평여자축구단은 최근 2주 만에 회원이 50%가량 늘었고 전국 30여개의 '아줌마 축구단'에 가입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경기 내내 선수와 공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부딪치는 축구는 '남성의 운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 관람은 물론, 거리응원을 통해 남성만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축구 마당에 여성들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흔히 21세기를 여성의 시대, 남녀평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남성들의 배타적 우월 의식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속에서의 현상일 뿐, 불법에서는 원래 차별이 없다고 가르친다. 월드컵을 통해 나타난 여성들의 열정과 용기는 월드컵 축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날 수행하고 있는 소마 비구니 앞에 마왕 파순이 나타나 말했다.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여자의 몸으로는 능히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소마 비구니는 게송으로 대답했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자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누구라도 지혜를 얻게 되면 위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 <소마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⑯

물결을 잊고 물을 경험하라

불법은 애써 공부할 것이 없다. 다만 평상(平常)하고 일 없으면 될 뿐이다.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라면 알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이라면, 어떠한 경계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으니, 비록 익혀온 습기(習氣)가 오무간업(五無間業)을 이루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똥 누는 것은 무엇이고, 옷 입는 것은 무엇이며, 밥 먹는 것은 무엇이고, 누워서 쉬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물이 소화되어 대장을 통과하여 항문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똥 누는 것이고, 아랫도리와 윗도리에 팔다리를 끼워 넣고 단추를 채우는 것이 옷 입는 것이며, 밥그릇의 밥을 숟가락에 떠서 입에 가져다 넣는 것이 밥 먹는 것이고, 방바닥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있는 것이 누워서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부 중생의 뒤집어진 견해이다.

범부 중생의 견해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은, 그 견해가 전부 모양을 따라서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의지할 수가 없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스쳐지나가는 무상한 모양을 의식 위에서 허상으로서 고정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부조리와 번뇌가 생겨난다.

의식 내면에 들어 법성 경험

가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양, 들리는 모양, 느껴지는 모양, 부딪히는 모양, 생각되는 모양을 따라서 의식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범부 중생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모양은 의식 위에서 순간순간 생멸하며 스쳐 지나가는 현상으로는 인연이 물결과 같다고 하면, 바른 견해는 물결의 허망한 모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일렁이는 물의 입장에서 인연 따라 일렁이고 있을 뿐이다. 물결의 모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일렁이는 물은 곧 일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바른 견해에는 어떤 고정된 내용이 없다. 다만 순간순간 나타나는 인연의 허망한 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나타나는 인연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고 저절로 응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모양 있는 일렁이는 물결의 입장에서 보면 물도 일렁이는 것이지만, 물결을 떠난 물의 입장에서는 물은 그냥 물일 뿐 일렁임과는 상관이 없다. 즉 인연을 따라 일렁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물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물의 입장에서 있다면, 물결이 일렁이든 일렁이지 않든 물은 항상 그대로 물일 뿐이다. 그런데 물결이 일렁이지 않는다면 물결도 없지만 물의 존재를 알 수도 없다. 물결의 일렁임을 통하여 물의 존재도 알려지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여기 의식에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되고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인연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본다면 모두 무상하게 변화하는 허망한 것들이다. 그러나 모양과 상관없이 인연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움직임을 통하여 법성(法性)의 존재가 알려진다. 즉 법성의 체험은 의식의 움직임 속에서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체험은 의식 위에서 알려지는 모양을 갖춘 알음알이가 아니다. 이 체험은 물결의 표면에서 문득 물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 물결을 잊고 물의 존재를 경험하듯이, 의식의 표면에서 문득 의식의 내면으로 잠입해 들어가 의식의 모양을 잊고 의식의 바탕인 법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1. Announcement of the Imminent Birth

This illustrates the Buddha who was waiting in Tushita heaven, entering the womb of Maya, who would become his mother. It depicts Maya's pregnancy-foretelling dream. Shakyamuni Buddha is descending from heaven to earth riding an elephant under the escort of heavenly being.

이 장면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어머니가 될 마야부인에게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마야부인의 태몽을 그린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는 하늘에서 코끼리를 타고 천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땅으로 내려온다.

2. The Birth

This illustrates the baby being born in Lumbini Park. he emerges from the right side of his mother who is standing upright and holding a branch of a fig tree.

이 장면은 룸비니동산에서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는 무화과나무 가지를 붙잡고 서 있던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제 5회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

귀의삼보하옵고, 전국강원연합회에서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5회 전강련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12일(금) · 13일(토)
▷ 장 소 : 중앙승가대학교 대강당 · 지혜관
▷ 주 최 : 전국강원연합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강원교직자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해인사강원총동문회, 현대불교, 불교텔레비전 btn, 불교방송, 불교신문

- 7월 12일(금) -

▣ 제 1부 개회식 (오후 1:00 ~ 1:30)
● 삼귀의 인사말
● 격려사 : 무비스님(교육원장)
● 축 사 : 법장스님(전강련 상임고문, 수덕사주지)
지오스님(강원교직자협의회장, 해인사 강주)

▣ 제 2부 공동주제발표 (오후 1:30 ~ 3:00)
● 제1주제 「강원교육의 교학과 수행의 고찰」
- 혜국스님(남국선원 선원장)
● 제2주제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 제3주제 「한국불교 포교의 현장」
- 지광스님(능인선원 이사장)
● 기념촬영(오후 3:00)

▣ 제 3부 분과별 주제발표(오후 3:30 ~ 6:00)
● 제1분과 : 인도철학, 인도대승 이전 불교
- 임승택교수(동국대강사), 이중표교수(전남대철학과)
- 희찬스님(쌍계사 사집사), 일창스님(범어사 사교과)
- 원우스님(해인사 사교과), 심근스님(동학사 대교과)
● 제 2분과 : 중관 · 기신 · 유식
- 김성철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은정희교수(서울교대)
- 이평래교수(충남대 철학과), 혜현스님(삼선강원 사교과)
- 성종스님(백양사 사집과), 호선스님(동화사 사집과)
● 제 3분과 : 응용불교 · 선심리 · 비교불교
- 조현춘교수(경북대심리학과) 이혜숙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종우스님(운문사 사교과), 혜각스님(해인사 사교과)
- 선현스님(법주사 치문과)
● 제 4분과 : 대승불교, 법화천태 · 밀교
- 노권용교수(원광대) 이병욱교수(고려대강사)
- 법광스님(해인사 사집과), 태원스님(봉녕사 사교과)
- 명우스님(동학사 사교과)

▣ 저녁공양(오후 6:00 ~ 7:00) ▣ 다 과 회(오후 7:00)

- 7월 13일(토) -

▣ 학술대회 총회(오전 8:00) ▣ 폐회식

전 국 강 원 연 합

불교학술대회 조직위원회 055)931-3290, 931-1016 홈페이지 http ://www.insca.or.kr

불교대학을 찾아서

④ 정토불교대학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부설 정토불교대학. 50여 명의 재학생들이 25일 1학기를 마치며 서울정토법당 원장 무변심 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정토회관서 2년동안 우편물취급 자원봉사

17기 졸업생 성영진 불자



"일상의 삶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환희심까지 듭니다."

이번 학기에 서울 정토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성영진 씨(39 · 사진)는 2년간 정토회관에서 우편물 발송 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머리를 맑게 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성 씨는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원봉사' · '환경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특징

건학이념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부산·대구등 5곳에 분교…전국단위 교육망

매학기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졸업생은 50명 정도만 배출하는 학교. 2년의 재학 기간동안 총 16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학교. '자원봉사', '환경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정토불교대학(학장 법륜 스님)만의 특징이다. 언제, 누구에게라도 입학 문은 활짝 열어 놓지만, 졸업만큼은 까다롭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이미 '정토 학풍'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정토불교대학의 건학이념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를 모토로 출범한 정토회에서 설립한 만큼, '자리이타'라는 불교의 실천 덕목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충실은 '자원봉사'일 수밖에 없다.

총 4학기 2년 과정을 밟는 동안 학기당 4시간 총 1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재학생들은 사회단체 길거리 모금 활동, 사무실 당직 근무, 공양간 음식준비, 출판국 교정 업무, 통일정진 기도 동참 등 원하는 분야에서 대사회적 활동에 꼭 필요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토불교대학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란 주제의 수행론 과목과 '인류 · 환경 · 평화 · 복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불교와 사회' 등의 과목을 반복 수강케 한 '순환 학습(Feedback Study)'의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있다. 이런 과목은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므로 '열린 교육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천 중심 교육과정은 이뿐만 아니다. 재학생은 매학기 마다 학장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1박2일 특강수련, 70% 이상의 출석의무화, 수행체험 중심의 과제물 제출, 500배 용맹정진, 문경에서 정토회가 진행하고 있는 '자기성찰 프로그램'인 4박5일 '깨달음의 장' 등을 마쳐야만, 졸업생의 자격을 얻는다. 또한 오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삼귀의계'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보다 더 중요시한다.

강의 시간도 철저히 피교육자 중심이다. 재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수강 시간을 배려해 주간반은 전업주부, 야간반은 직장인들과 청장년층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1991년 9월 서울 종로 대각사 불교회관에서 처음 학교 문을 연 이후 1999년 서초구 정토회관으로 학사를 이전한 정토불교대학은 서울에 있는 본교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 등 5곳에 분교를 잇따라 개설, 명실공히 '전국 교육망'을 구축했다. 설립 10년 여 만에 정토불교대학은 1학기 이상을 마친 3,261명의 수료생과 4학기를 마친 408명의 정기 졸업생을 배출, '사회적 실천' 중심의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정토불교대학 무변심 지도법사는 "학교는 강의와 커리큘럼만 준비할 뿐, 행사 기획, 평가, 수련회 준비 등 모든 운영은 '대중주체'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배운 바를 생활화할 수 있는 '실천하는 불자'를 키워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587-8994

김철우 기자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지난달부터 점자 공부 시작한 아빠

"제가 눈 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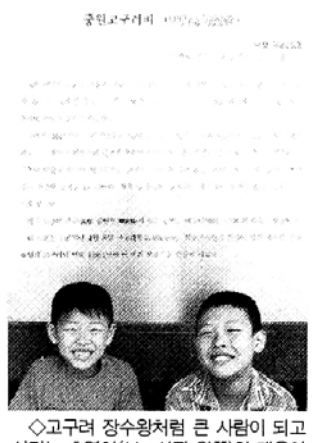
"아빠! 호영이예요. 며칠 전 밤새 아빠 '끙끙' 댔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항상 병원에만 있었죠. 배에는 굵은 빨대 같은 걸 꽂아두고 연신 허연 물을 넣고 빼곤 했었는데…. 호빵아저씨처럼 퉁퉁 부은 얼굴이 가라앉아 지금은 많이 나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그러니 걱정이예요."

호영이가 아버지 원병용(42) 씨에게 쓴 마음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엄마가 저녁에 공장일 나갈 때마다 아빠 힘드니까 괴롭히지 말래요. 저번에 피자 사달라고 졸랐다가 엄마에게 무지 혼났었잖아요. 대용이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꾸중만 받았죠. 아빠! 난 요즘 은근히 화가 나요.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됐다고 반쯤 어른 취급을 하시지만, 가끔 어린 아이처럼 투정도 부리고 싶거든요."

만성 신부전증 아버지 합병증…실명위기

엄청난 비용때문에 이식수술 엄두 못내



◇고구려 장수왕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호영이(14 · 사진 왼쪽)와 대용이(12).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중원고구려비' 안내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중학생 호영이. 아직 가끔씩은 어리광을 부릴법한 나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빠, 사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 어저께 부엌에서 울었어요. 오줌 누고 물 먹으러 갔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었죠. 시커먼 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도둑놈인 줄 알고 '툭' 쳤더니만 엄마더라구요. 내가 요새 들어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우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울다가 웃더라구요. 실은 아빠, 엄마가 우는 이유를 난 잘 알아요. 작은 아버지하고 아빠의 신장조직이 같아 이식수술을 받으려 해도,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것을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택시 기사가 꿈이었다는 호영이. 교통봉사대 단복을 입고 운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단다.

"아빠 알아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아저씨들과 같이 야유회 갔을 때, 엄청 신났었어요. 교통봉사대 아저씨들이 도와줘 몸이 건강해졌다는 13명의 아이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했던 말 아빠 기억나요? '나누며 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요. 그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4년 전부터 아빠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두 눈이 거의 안보이게 될 정도로 이르러서야 아빠의 그 말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너무도 잘 아는 호영이. 하얀 종이 허리춤에 걸쳐있는 찍다만 점자 틀에 눈길이 옮겨진다.

"아빠 요즘 점자 공부 시작하셨잖아요. 아빠 너무 걱정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빠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근데 요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빠가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기 전에 빨리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용보다 더 작으니 어떡하죠? 그렇다고 너무 마음 쓰지는 말아요. 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것처럼 큰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믿죠? 호영이를요."

■호영이네 집안 형편을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52-12 전화번호 : (043)854-2159
후원계좌 : 농협 417010-52-042654(예금주 원병용)

충주=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3〉 룸비니의 보리수

새벽안개 속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

"지금도 들판 가운데 홀로 있을…"자태 선해

지난 1991년부터 설산 언저리를 떠돌며 살고 있지만 제 눈에 보리수가 보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설산과 하늘, 마을과 사람, 또는 풀꽃이나 짐승만 보였지 보리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리수에 관한 아무런 기억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리수가 제 의식 속으로 들어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경, 그러니까 룸비니에 있는 한국 사원 〈대성석가사〉에 기식하며 조석 예불 전후에 주변 들판으로 산책을 다닐 때였습니다.

룸비니는 북쪽만 설산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세 방향은 모두 지평선으로 이어지는 대평원입니다. 저는 평원에서 뜨고 지는 해를 보는 일도 일과를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원 한가운데 구부정하게 서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원 가득 낮게 깔린 새벽 안개에 무릎을 적시고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를 향해 저는 기어이 들판을 건넜습니다.

며칠 후에 알았지만,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였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도 들판 가운데 홀로 서 있을 그 보리수의 자태가 선합니다.

제 눈에 보리수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석존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의 보리수도 비로소 눈에 들어왔고, 인도와의 국경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도 거대한 보리수 그늘 밑에 자리잡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 카트만두에 와서 정착하고 보니 눈길 닿는 곳마다 보리수가 서 있었습니다.

보리수란 석존께서 그 나무 밑에 좌정하여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석존 이전에도 보리수는 뭇 수행자들의 거처였을 겁니다.

어찌 수행자들뿐이겠습니까. 거지나, 거지 비슷한 행려들의 임시 거처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보리수들은 우람한 밑 둥 사이에 혈(穴)이 있어 지금도 그 속에서 사람이 살거나 신전(神殿)을 모시기도 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한 시간 만 걸어다녀 보면 이렇듯 고목이 된 보리수를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수는 시장 가는 길목에도 있고, 사원 앞 공터에도 있고, 집 앞에 내놓은 화분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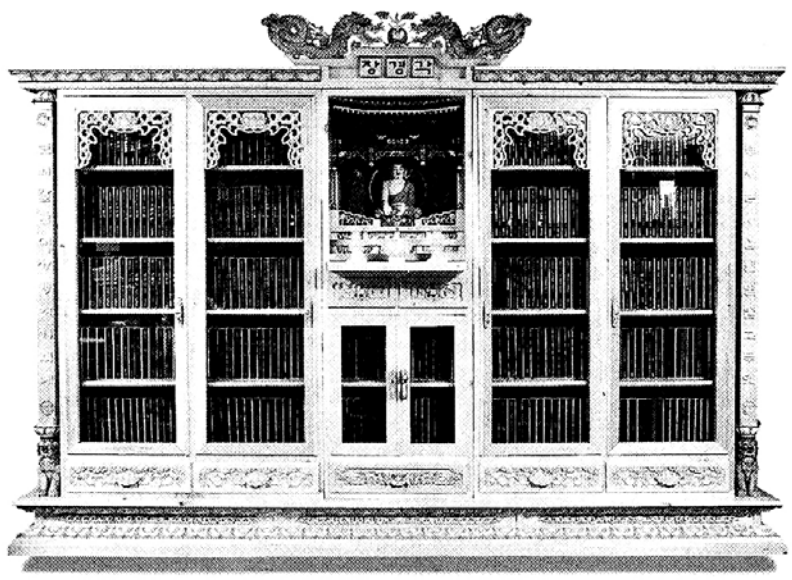
카트만두에는 보리수가 힌두 사원이나 불탑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트만두는 그렇듯 복 받은 도시입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도 마하보디사원 세계문화유산 지정

불교유적지 중 네번째…빠르면 주중 발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Buddhagaya)의 마하보디(Mahabodhi)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하보디 사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인도에서 열일곱 번째, 인도 내의 불교 유적지 중에서는 아잔타와 엘로라(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석굴을 모두 포함) 석굴군과 산치의 대탑에 이은 네 번째가 된다.

부다가야에 처음으로 불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아쇼카 대왕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뒤를 이은 슝가왕조 시대에 모두 파괴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석주와 석좌(石座) 뿐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4~5세기 경 굽타 시대에 파괴된 사원을 복구, 증축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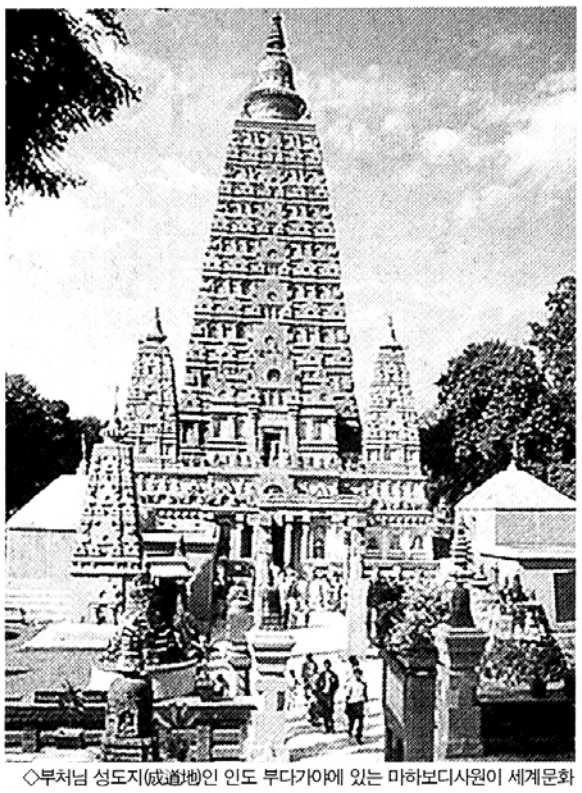
7세기 초 인도를 방문했던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 나타난 부다가야 사원에 대한 묘사는 그 규모와 장식까지도 1880년 보수되기 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사원의 구조와 장식은 단순한 편인데, 조성 당시 동부 인도에 크게 유행하던 건축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것이며, 그때의 건축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1833년 이슬람의 침략으로 황폐화 된 사원을 버마 대사가 방문하여 빨리어 명문을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버마의 관심은 1874년 버마 왕이 인도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다가야의 보리수를 보살필 두 명의 관리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허가를 받았다. 다음 해인 1875년 버마 외무장관은 인도 총독에게 부다가야 사원의 보수를 제안하여 1880년부터 81년에 걸쳐 대대적인 사원의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 때도 가능한 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복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원의 보수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은 보존상태가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인도에서도 뜻있는 불자들이 우려하던 불교 문화재 중 하나였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특별 보존, 관리 지도를 받게 되어 보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 수입이 사원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게 된다면, 불교 성지의 유서깊은 문화재가 좀 더 잘 보존, 관리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불교학자인 아히르(D.C. Ahir) 박사는 밝혔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부처님 성도지(成道地)인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마하보디사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마하보디 대탑은 전세계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불교 성지 중의 하나다.

中 116세 두품화 보살 세계 최장수 노인

불자…성 안내고 채소 즐겨 먹어

중국 사천성(四川省) 낙산시(樂山市) 오통교(五通橋) 구위원회 소명무(蕭明武) 부서기는 6월 19일 세계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수인' 증서를 116세의 두품화(杜品華) 보살에게 전달했다. 이 보살은 3 세기를 사천에서 산 노인으로 세계 최장수 인정을 받았다.

1886년 4월 22일 사천 낙산에서 태어난 두품화 보살은 116세의 고령이지만, 아직 사유가 민첩하고, 말에 풍취(風趣)가 있으며, 귀도 잘 들린다.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손에 특별한 힘이 느껴질 정도로 건강해 지금도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한다.

노 보살이 사는 낙산시 오통교는 휘산과 진산 구역내에 있다. 이 곳은 산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공기가 매우 청정하다. 그녀의 집은 냇물 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민가이며, 앞쪽에는 논이, 사방에는 작은 산이 위치해 수목이 무성한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웃에 사는 85세의 주순덕(周順德)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 할머니는 40세였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불교를 믿고 매일 채소를 먹었으며, 사람들을 좋아하고 화를 내지 않았으며, 매일 웃었다"고 말했다.

세계최대 비취관음상

중국, 내년 초 봉안

세계 최대의 비취옥 관음상으로 조성될 무게 8톤의 비취원석이 3일 광동성(廣東省) 심천(深 川) 해상전원 풍경구로 옮겨져, 내년 춘절(春節, 음력 1월1일) 봉안될 예정이다.

이 관음상의 원석은 미얀마에서 채굴해 온 것으로 당시의 중량은 18톤에 달했다. 1999년 북경으로 운반된 후, 그 중의 한 부분이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심양 비취대불'로 조성됐다. 나머지 부분으로 이뤄진 이 8톤의 옥석은 앞으로 4m 높이의 남해관음상으로 조성돼 '북쪽의 대불, 남쪽의 관음'의 국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五代 마애석각불경 발견

불정존승다라인경 서문 침식불구 글자 선명

중국 정부는 6월 23일 고고학자들이 산서성(山西省) 신강현(新絳縣)에서 오대(五代)시기의 진귀한 마애석각(磨崖石刻) 불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석각은 신강현 장상촌(張上村) 태음사(太陰寺)에서 남쪽으로 약 5km 지점에 있는 동화산(東華山) 태음사애(太陰寺崖) 위에서 발견됐으며, 〈불정존승다라인경(佛頂尊勝陀羅仁經)〉 제 1권의 서문 1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석경의 서문에는 "불정존승다라인경은 브라만 승려 붓다보리(佛陀波利)가 의봉(儀鳳) 원년(당 고종, 676년) 인도로부터 이곳 오대산으로 가져왔다"고 기록돼 있다.

경문은 모두 2천여자의 해서(楷書)로 기록되어 있으며, 매 글자의 크기는 1.5 ㎝ 정도로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경문 뒤에는 '대진천복(大晉天福) 3년(938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 석경이 오대 진나라 시기의 작품이며, 당시 태음사 스님들이 글자를 새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외 불서



• '불교와 의료' : 〈찬란한 생명을 응시하는 불교와 의료〉는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스님이자 의학박사인 저자 토모쿠쿠유(友久久雄)가 마음과 몸의 건강에 대해 말한 책. 제1장 '감사하는 생활 방식'에서는 선량한 마음과 행위, 올바른 생사관,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고찰하고 있다. 제 2장 '마음 다스리기'에서는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들과 방황하는 사춘기 학생들을 위한 카운셀링과 마음 엿보기를 다루었다. 제3장 '몸의 건강'에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른 병 다스리기, 노인과 건강생활 등을 조명했다. 제4장 '찬란한 생명'에서는 찬란한 생명 응시하기, 임종간호의 실천과 과제 등을 다루었다. 교토, 본원사(本願寺) 출판사 펴냄.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9. <화엄경>의 지리인식

〈화엄경〉과 〈법화경〉과 같은 불멸의 대승경전들은 아직도 현대인들의 사고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마술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그 구성이나 내용은 매우 장대하여 어느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가 생성되고 전해진 아시아의 모든 지역문화를 포괄한다. 즉 대승불전의 공간인식과 표현에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다시간, 다공간 불국토의 존재를 상징하는 사방, 시방의 공간적 광대함은 이 경전들이 재편집된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공간적 스케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종의 초월적 지리학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대승불전의 공간인식 즉 동서남북의 사방에 불세계가 존재하고 특유의 방편과 장엄을 구족한 불세계가 있다는 묘사는 당시의 현실적인 지리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화엄경〉의 원래 명칭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이 경전의 범어 제목은 "마하 바이플야 붓다간다뷰하 수트라(Mahavaipulya buddha-gandvyuha-sutra)" 또는 "붓다 아바탐사카 나마 마하바이플야 수트라(Buddhavatamsaka-nama-mahavaiplya-sutra)"라고 한다. 여기서의 'avata-msaka'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꽃을 묶어서 엮은 꽃다발 장식'을 의미한다.

남인도 · 중앙아시아 · 중국
심지어 한국 금강산 위치까지
전 지구적 화엄세계 서술

〈화엄경〉의 성립 시기는 B.C. 1, 2세기경 시작된 대승불교의 발흥과 함께 남부인도에서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어 중앙아시아의 코탄(Khotan)에서 광본(廣本)으로 편찬, 집성된 경전이다.

현재 한역 〈화엄경〉에는 80권본 화엄경, 60권본 화엄경, 40권본 화엄경과 같은 3종의 한역과 1종의 티베트어역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이다. 화엄경의 여러 판본은 모두 상상의 공간이나 지리적 위치가 아닌 남인도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심지어는 한국 동해안의 금강산의 실재적인 위치를 포괄하여 전지구적인 화엄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입법계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가라(sa?ara)'라는 용어는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바다'를 의미한다. 저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에 위용을 남기고 있는 보로드부르사원이 화엄경의 이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화엄사상이 중앙아시아의 코탄을 거쳐 중국과 신라로 북동진할 때 또 한 가닥의 화엄사상은 저 인도양의 자바로 남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화엄경은 성립과 유통면에서 동양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경전이며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저 인도양의 해양문화와 인도, 중앙아시아을 포괄하는 대륙문화의 장대한 집대성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는 코탄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중국의 여러 불교 거점들이 지명화(地名化)되어 많이 열거된다. 때문에 화엄경이 실크로드 남도의 코탄에서 최종적으로 편찬, 성립되었다는 설이 확정적이며 60화엄은 지법령(支法領)이 코탄에서 취경(取經)하였으며 80화엄 또한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코탄에서 가져와 번역하였다. 4세기말에서 5세기 중엽까지 인도의 불적을 순례한 중국의 법현(法顯)은 이미 그의 여행기 〈불국기〉에서 당시 코탄에는 코마티이라는 대승의 사원이 있었으며 3천명의 승려들이 대승불학을 공부하며 엄숙한 수행을 쌓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까지 코탄부근에서 화엄경과 법화경 대승경전의 사본이 출토되는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역 화엄경의 서지적, 사상적, 예술적 기원은 코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1년 5월 필자는 〈화엄경〉의 고향, 실크로드의 모래바람과 더위를 뚫고 코탄에 갔었다. 우루무치에서 3박4일간 버스를 타고 찾아간 코탄은 현재 허톈(和田)이라고 이름도 바뀌었으며 융단과 바자르, 이슬람 사원만이 흘러간 역사의 물결을 남기고 있을 뿐 불교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황량한 사막의 거리였다. 코탄의 거리에 선 나는 이 덧없는 몽환 또한 화엄이라고 여기며 깊은 신비와 슬픔을 맛보았다.

경학회 회주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 (전문직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수시모집)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011)849-0961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7)563-3062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자원봉사자들이 수련회 참가자들의 접수를 받고있다.



◇쌀우놓인 자리위에 수련생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수련복을 치수에 맞게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다시한번 가다듬어 본다.

초발심 되새기며 수련참가자 손·발 노릇

해인사 수련회 자원봉사자들의 '하루'

제19회 해인사 사찰수련회 입재 전날인 24일 새벽 3시. 김중도화 보살(34)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일어났다. 세수를 간단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아침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대적광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보살이 이곳 해인사에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9년. 텔레비전에서 성철 스님의 열반 관련 보도를 보고 해인사를 찾은 김보살은 매년 2~3개월 자원봉사를 한다. 94년 사찰수련회 참석을 계기로 시작한 자원봉사는 김보살 일년 계획의 소중한 부분이다.

김보살이 이렇게 해인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업과 관련이 있다. 어릴 때부터 해온 홍합양식일이 여름철에는 비수기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저에겐 홍합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 생명에 부처가 깃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보살은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을 마치고 보경당에서 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수련복 정리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수련회 습의사 스님의 지도아래 금비라 보살, 미진수 보살과 함께 수련복을 치수대로 분류하고, 보기 좋게 개어 놓으며, 자신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 때의 초발심을 되새겨본다.

다음은 발랑(발우 싸는 천) 만드는 일. 보월화 보살이 재봉질로 발랑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다시 뒤집고 가지런히 접어서 한 자리에 모은다. 이 과정에서 보풀이 묻어나와 주위를 어지럽히면 자신의 탓인 양 재게 손을 놀려 치운다.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선 보경당에서 수련회 안내책자에 속지 넣는 일을 한다. 미진수 보살과 함께 책자에 수련회 일정표와 발우공양작법, 서약서 등을 넣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해본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수련회 강당과 거사들의 잠자리가 될 보경당과 보살들의 잠자리가 될 지장전 내부 꾸미기를 한다. 벽면에는 수련회 일정표와 안내 사항, 주의 사항 등을 붙인다. 기둥 하나하나에 묵언 · 차수 · 화장금지 등을 붙인다.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온갖 물질의 풍요속에 지내왔던 그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나 자신부터 거기에 끄달려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살폿 해본다.

25일. 아침부터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먼저 수련회 참가자 이름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미 준비되었어야 할 것이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관계로 모든 이들이 여기에 붙어 일을 한다. 100여명 참가자들을 조별로 나누고, 봉참을 통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성껏 이름표 하나하나에 글씨를 쓴다.

오후 1시. 드디어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공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개인물품을 맡긴 다음 수련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수련복을 입으면 이내 딴 사람이 된다. 법당에 묵언 · 차수 등이 붙어 있는 것도 여기에 한 몫을 하지만 수련복 자체가 주는 의미 또한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수련을 잘 하라고 공양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정성스럽다.

수련복 정리·공양간 일등 눈코뜰새 없어
"자아성찰 도움됐으면" 일심으로 뒷바라지

수련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착했다. 거사 2명과 보살 1명.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 회마니장 보살(52)은 94년 수련회에 참가한 뒤 수련 동문회에도 적을 둔 열성파다. 최고령 자원봉사자인 최보살은 시누이와 시동생이 스님인 그야말로 불자 집안인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보살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32세 때. 집안 문제와 산후 조리 부실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으나 시어머니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것이 부담이 돼 차일피일 미루다 관음기도를 하고 나선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제가 불교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불자로서 늘 모범을 보이면 저를 보고서라도 절에 한 번 와 볼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수련회 참가자들이 보고 자신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수련생들이 법당에 들어가 공식적인 일과를 시작하자 최보살은 현공 거사와 묘음성 보살 등과 함께 컵을 씻고 식수를 떠 온다.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수련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로수 한 컵도 제법 유용할 것이다. 또 도시의 수돗물이 아닌 가야산 해인사의 물맛도 그들에게 산사 찾는 또 다른 맛으로 작용해 불자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발원해 본다.

최보살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보경당 한쪽에 모여 앉아 수련생들을 위한 물품 점검도 한다. 모기약부터 시작해서 설사약, 변비약, 밴드, 파스, 우황청심환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한다. 몸이 아프면 수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의 저녁 발우공양이 끝나고는 천수차관을 비롯해 숭늉차 관, 국통, 찬상, 공양통, 퇴수통 등을 공양간으로 옮긴다.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내 집안일보다 정성껏 한다.

잠시 후, 최보살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공양간으로 이동한다. 뒷정리를 위한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행자들이 하지만 봉사자들은 그야말로 뒷정리를 한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최보살은 자신의 마음의 때 까지도 함께 닦는다. 불자로서 잘 행했는지, 잘 행하고 있는지 반추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9시 취침 시간. 최보살은 몸은 고단하지만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자리에 든다.

합천=남동우 기자 a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ogo@buddhapia.com

다수가 사찰수련 경험자
"좋은체험 했으니 남 돕겠다"
모임결성 조직적인 봉사도

자원봉사자들 다수는 사찰수련회 경험자들이다. '좋은 경험이 됐으니 다른 사람의 수련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수련회 참가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순천 송광사의 경우 수련회 참가자들이 '송사모(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문수지 보살)'라는 모임을 만들어 수련회 1~2주 전 서로 연락을 하는 등 수련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수련회 봉사는 성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남 미황사의 경우 매년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설하는데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한문학당 선배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다 수용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다.



◇이불정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뜯어진 곳은 없니" 한 봉사자가 수련복을 꿰매고 있다.



◇다소 침에 부칠지라도 봉사가 또 하나의 수련이기에 안내한다.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천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 입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㉝ 안락행품 제14

친근처(親近處)

지난 호에서는 '신안락행'에서의 행처(行處) 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친근처(親近處)이다. 친근처의 원어는 고차라(gocara)로, 행위의 대상 또는 행동 범위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대로 가까이해야 할 것이 설해져 있다.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국왕이나 왕자, 대신이나 관리와 같은 권력자. 다음으로 이교도, 문화자나 음악가, 격투인 등 세상에 오락을 제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오락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또 찬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나 짐승을 기르거나 어업과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세속의 사람들을 자진해서 가까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즉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법을 설해 줘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성문(聲聞) 2승린 제자나 사미(沙彌) 및 어린애 등을 기르지 말라고 한다.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이것도 앞의 성 문제(性問題)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어떤 경우에도 욕망의 생각(欲想)을 가지고 접근치 말라는 것이다. 성의 문제는 불교교단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출가수행자의 계율(戒律) 맨 처음에 바라이죄(波羅夷罪)로서 불음계(不淫戒)가 두어져 율(律)의 문헌에 갖가지 사례가 설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바라이(波羅夷)란 파라지카(parajika)의 음사(音寫)인데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는 뜻으로, 비구가 승단(僧團) 또는 그 결계(結界)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모두 초심의 보살 즉 초발심의 보살이 가져야할 마음과 몸가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본분은 독신(獨身)이어야 한다. 출가라는 말은 가족을 가지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의 유가(儒家)에서는 제가(齊家) 즉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데 불가(佛家)에서는 집안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여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근친자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가자는 가정을 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금욕(禁欲), 아니 극욕(克欲)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신출가(身出家)보다도 심출가(心出家)가 더 위라 하여 출가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대승(大乘)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에서부터 위반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리하여 남방불교인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에서는 북방불교 즉 이른바 대승불교(大乘佛敎)를 비불교(非佛敎)라고 규정짓고 있음에 대해 조용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는 앞과는 반대로 친하고 가까이해야할 것이 있으니, 그 첫번째는 '항상 좌선(坐禪)을 부지런히 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그 마음을 다스려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공(空)의 입장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고 하는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권력자·이교도·사냥꾼·예술가 등

멀리해야 할 사람 **가까이해야 할 일**

좌선·마음 다스리는 일, 空입장서 觀하기

二乘)의 출가자 및 그 남녀 신도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또 성적(性的) 능력이 결여된 남성과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상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맨 마지막, 성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교교단에는 원래부터 성적으로 건전한 남자가 아니면 승단(僧團)에 들어올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곧 출가 수행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원래부터 성욕이 없거나 성적으로 불구여서 불능(不能)인 사람은 불도(佛道) 수행에서 성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깨달음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욕망과 마찬가지로 성의 욕망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해탈 열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적으로 불능인 사람은 불교 수행 길에서는 결격자로 규정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수행자가 아닌 가르침을 받는 쪽의 사람에 대해서도 성적으로 건전해야할 것을 요구한 것이리라.

이 대인관계에서는 이상과 같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나이 어

청정한 마음자리 깨



가까이

혜정스

서울의 진산 삼각산(三角山). 삼각산은 상고시대부터 영산으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예종 4년 탄현 대감국사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삼각산 정상 아래에 세운 절이 문수사이다.

문수사는 원래 문수동굴 앞 작은 법당 한 칸이 전부였다. 올 가을 중창불사 회향식을 갖는문수사는 이제 법당(25평), 공양간(49평), 요사채(20평), 문수법당(40평), 나한전(15평), 삼성각(8평)등 당우를 갖춘 도량으로 거듭난다. 스님은 18년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면 문수동굴에서 샘솟는 감로수를 마시려고 찾아오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야단법석을 연다.

혜정스님이 청담큰스님 탄신 100주년기념 전집에 들어가는 1천장 분량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6월 27일, 본사인 삼각산 도선사로 향했다.

도선사에서 뵌 혜정스님은 청담대종사가 생전에 주석하시던 백운정사 앞 200년 수령의 보리수나무 옆을 산책하고 계셨다. 스님은 "은사스님을 추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논문을 쓰고 있지만 행동과 분리된 관념적인 냄새가 나는 사상을 늘어놓는 것이 허물은 아닐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고 말문을 여신다.

스님은 나직이 은사 청담스님을 회고하듯 말씀하셨다.

"은사스님(청담)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 늘 '인욕'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수행은 물론, 중생들이 선행공덕을 짓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은사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사스님은 항상 제게 '내가 어떤 이에게 욕지거리를 당하며 매 맞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말리지 말고 '스님, 인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며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언젠가 정말로 젊은 스님들이 몰려와 큰소리를 치며 갑자기 큰스님을 떠밀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까맣게 잊은 채 내가 끼어들어 뜯어 말렸지요. 그 자리에서 은사스님은 저에게 호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은사스님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인과의 업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사스님은 또 대중스님 중 누가 잘못해서 3천배 참회정진을 하면 꼭 함께 절을 하셨어요. 그 스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잘못한 공업(共業)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무작정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여 자기 스스로 참는 마음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참는다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불쾌하고, 힘든 일들이 닥치면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내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라는 게지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가르침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납니다."

> "
> 권력·재물무상 우주이치
> 백년동안 쌓아온 재물
> 하루아침 없어질 수 있지만
> 3일쌓은 수행복덕 100년
> "

큰방으로 자리를 옮겨 독자들에게 들려줄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대뜸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해요.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도 닦지 않는 중생들은 노예 되어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기 십상입니다. 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라고 짧게 설하셨다. 스님은 18년간 등산객들에게 '모든 악한 것은 하지 말고 모든 선한 것만 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참삶을 밝히는 스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불교는 인간이 배우고 실천해야할 것을 가르치는 덕목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관(無常觀)'을 투철히 가져야 해요. 이 우주법계에 시간이 흘러도 흩어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도 물체인 만큼 언젠가는 사라지지요. 모든 우주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부처의 성품 즉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처의 성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청정한 성품을 번뇌와 탐욕, 집착이 가리고 있어 중생들은 몸뚱아리의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연만큼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수행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정한 마음자리를 깨달아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 하셨다.

왜 수행인가. 과연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 많은 초심불자들이 의문 갖는 사항이다.



◇은사인 청담대종사가 생전에 주석하시던 백운정사를 둘러보시는 혜정스님.

"수행하면 덕이 생깁니다. 지혜와 복을 갖춰 남한 테 복덕을 주는 사람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지요. 그래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재가불자들은 사회 속에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이라도 '무루 복'을 얻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권력무상 재물무상은 우주의 이치니다. 백년간 쌓아온 재물은 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지만 3만 수행해도 그 복덕은 100년 같습니다. 그러니 일념으로 수행세요.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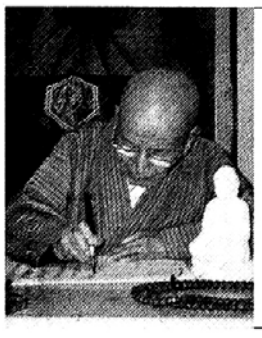
스님은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초 '신심'이라고 강조하셨다. "겉으로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해도 신심이 없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가 없어요. 신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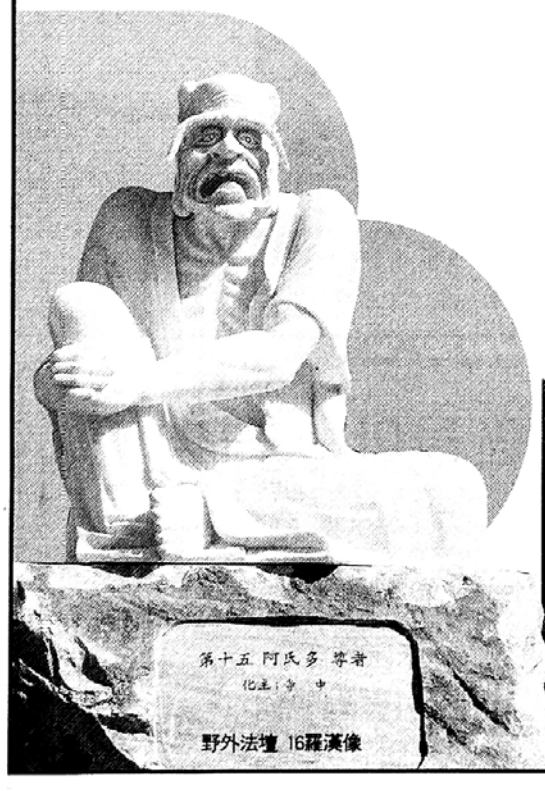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 korea buddha co 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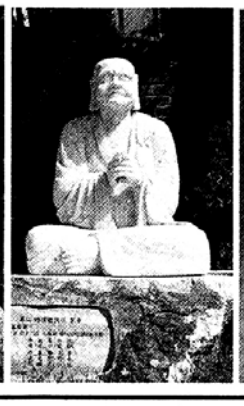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國寶
慈悲하시고 遠慮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通聖像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正觀 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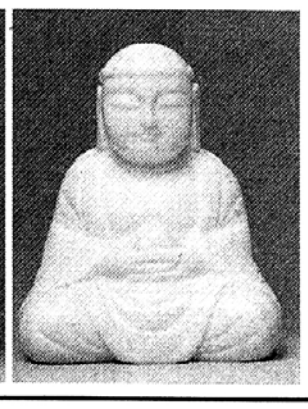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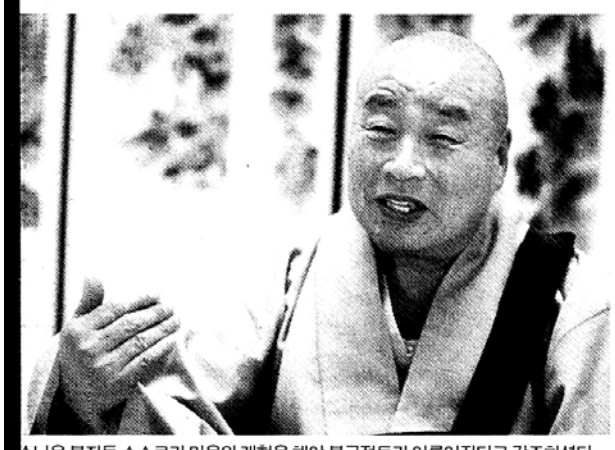


아야 영원한 참생명

큰스님

혜정스님(71세)이 18년간 머물며 중창을 해온 문수사에는 한국불교 중흥조인 태고 보우국사가 자연석굴인 문수법당에서 수행하다 문수동자가 건네준 감로수를 마시고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문수사 주지)



스님은 불자들 스스로가 마음의 개혁을 해야 불국정토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다.

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같이 삭막한 시대에는 보시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폐도 쌓아두면 신문지 모아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계바라밀은 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으로고 한 계는 불교인이면 지켜야할 윤리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며 인욕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통이 찾아와도 참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욕수행과 더불어 한 평생을 게으름 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깨우치면 천지우주간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 모든 악업에서 해탈되고 대자유를 얻을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여 정진 또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와 복을 갖추면 그 사람은 저절로 큰일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개인이 자기 이기적인 것만 내세우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자기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는 것이라며 육바라밀 정신이 불자뿐 아니라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스님은 이번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른 것은 기술과 기능이 향상돼서가 아니라 국민의 염원이 하나로 집중돼 발현된 결과라고 말씀했다. "염원이 집중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스님은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위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위해 3가지 덕목을 설하셨다.

"먼저 각자가 중생심을 개혁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기 잘못된 생활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참회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해져 국가까지도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걸림 없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국정토는 저절로 이뤄집니다."

'위대한 국민' 3가지 덕목

①중생심을 개혁하세요

②참회정신을 가지세요

③양심에 떳떳하게 하세요

스님은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선업을 쌓다보면 저절로 복과 지혜가 생긴다고 누차 강조하셨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계종단의 수행자들에게 열심히 정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조계종단은 수행종단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어느 곳에 있던지 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서산스님은 금강산에서 잠을 이기기 위해 송곳을 앞에 두고 수행하였으며, 고봉스님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등에 돌을 짊어지고 수행하셨어요. 수행자는 항상 복전이 돼야 합니다. 밥먹는 것도 성불하기 위함이요, 몸을 유지하는 것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옛날 스님들의 생활을 항상 돌이켜 근검절약하며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큰절 주지소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와 명예를 얻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질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해요. 혼자 살더라도 항상 대중이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승려의 위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도선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넘실대는 신록은 유난히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참회기도를 위해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불자들의 눈빛처럼.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혜정스님은?

도선사 선원 선덕인 혜정스님(71세)은 항상 수행자들에게 시은은덕과 근검절약을 강조한다. 스님은 그 흔한 자동차도 없다. 가끔 서울 혜화동 가볼릭대 강의 등 시내에 볼일이라도 있으면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왕복 4시간동안 산길을 걷고, 항상 버스와 전철만 타고 다닌다. 불자들의 보시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된다는 스님은 아무리 바빠도 밖에서 공양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스님은 주위 신도나 일반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절에 모인 보시금이 어찌 스님 것이냐'는 소신 때문.

스님이 상좌스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수행자의 위의' '겸손' '하심' '평등'이다. 못산다고 힘없다고 '불성' 이 똑같이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18년간 삼각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교리법회를 열고, 공양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문수사 불사가 시작되자 문수동굴에서 감로수 떠먹고, 법문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중에는 장관들도 있었다.

스님은 이것을 부처님의 공덕으로 생각한다.

스님은 1931년 충북에서 태어나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 선방 등 에서 수행을 했다. 특히 성주사에서는 성철스님 밑에서 참선정진 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을 거쳐 동화사 주지, 해인사주지 직무대행, 조계종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 국제포교사,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선원 선덕, 청담학원 이사, 삼각산 문수사 주지를 맡고 있다.

'수행자 위의·겸손·하심·평등' 강조…등산객 대상 법회도

그런데서도 '나는 이 서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업에 이끌려가는 삶인 업생(業生)에서 벗어나 원력으로 지어가는 삶인 원생(願生)의 삶을 창출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스님은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실천을 말씀하셨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육바라밀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생활실천 수행덕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갚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형문스님

경허스님의 제자 3月가운데 수월스님(1855~1928)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다. 얻어들은 풍월로 〈천수경〉을 외운 뒤 나무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방아 찧는 일을 할 때에도 천수다라니만을 지송하였다. 몇 년 뒤 천수다라니로 7일 용맹정진에 들었는데 7일째 되는 날 밤, 수월스님의 몸에서 빛이 얼마나 광열하게 내뿜었던지 아랫마을 사람들이 천장암에 불이 났다고 뛰어올라올 정도였다. 그는 천수다라니삼매를 증득(證得)한 뒤, 병색이 짙은 병자가 찾아와 스님을 친견하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수월은 간도 나자구에 화엄사란 작은 암자에 주석하였는데, 이곳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갯마루에 있었다. 스님이 아침 일찍 짚신을 수십켤레 삼아 집 앞 처마에 매달아 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짚신을 갈아 신고 갔다. 또한 스님은 주먹밥을 해서 집 앞 샘터에 놓아두면 지나가던 길손이 시장기를 달랬다고 한다.

스님은 '중생을 제도하고서도 제도하였다'는



상(相)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無住相)보시로 공(空)사상을 실천한 분이다. 이 어른처럼 참다운 보시행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형문스님이다.

강원 도반이지만 나는 오히려 도반보다는 선지식이란 이름이 걸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형문스님의 평소 마음씀은 늘 주위사람을 숙연케 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절이 몇 년간 불사중인데도 일년에 몇 번 큰 행사를 계기로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번은 마을의 보살 한 분이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할 때 스님이 병원비를 내주고 손수 모시고 다녔다. 속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도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으면 늘 대중공양을 한다. "자신은 절 수호하느라고 정진하러 가지 못하지만 참선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불교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을 낮추어 말하곤 하는 스님이다.

학인 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하다. 스님은 1년에 몇 번씩 탁발을 해 고아원이나 무의탁 노인을 도왔다. 나는 스님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받아 사교반 때에 함께 부산으로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탁발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 택시를 타자고 제의했다. 형문스님은 "이 철부지 중아! 그래 중생들에게 베풀고자 탁발한 귀한 시주돈으로 택시를 타느냐"며 면박을 주었다. 스님은 학인 때부터 줄 끊어진 염주 꿰어주는 일을 좋아했다. '이것도 수행'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생활요건이다. 무소유(無所有)사상으로 부족한 것을 미덕으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승려의 본분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부끄럽다. 나 뿐만 아니라 몇몇 스님들이 귀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현실에도 스님은 자신을 위해 갖춘 것은 제대로 없다. 승복 한 벌 변변찮은 것이 없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자신을 위해 놓아둔 음식이나 한약 하나 없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없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보시한다.

두어 달 전에 스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제주도까지 문상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걱정했는데 도반들이 참 많이 다녀갔단다. 49재도 결제전날이었는데 제주도까지 근 10명이 참석했다니 그 보살님은 딸 덕에 좋은 곳에 가셨을 테지만, 형문스님이 평소 심어놓은 공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노자교수가 〈참여불교〉에 하화중생(下化衆生) 없는 한국 스님들에 대해 비판한 글을 쓴 것을 보았다. 어느 일면으론 긍정한다. 하지만 '박노자 교수가 수행자들의 진면목을 조금관 알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직접 중생을 제도하지는 아니해도 수행한 그 힘만으로도 무외(無畏)보시를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학인때 탁발로 고아원 도와
利他앞장·천일기도 세차례

형문스님은 자신보다는 남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타수행과 함께 기도정진에도 끈을 놓지 않는다. 스님네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뭘 그리 수선떠나 하겠지만 형문스님의 정진은 고개를 절로 숙이게 할 정도로 지극하고 끊임이 없다.

운문사는 해마다 오백나한 100일기도를 올린다. 스님은 100일 기도를 자청했는데, 마침 나는 오백전 부전이었다. 사중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였고 백일기도를 회향할 무렵에는 거의 나한전에서 살다시피하며 기도를 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후에도 천일기도를 3차례나 하였다. 근 10년 지장기도로 목소리는 거의 쉬어 있었고 감기에 걸려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한번은 기도 중 쓰러지기도 하였는데,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법당에 있었다. 나는 스님에게 '아무리 유심론(唯心論)을 주장하는 불가이지만,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므로 몸을 혹사시키거나 육체를 외면한 채 정신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막무가내다. ▩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선무(禪武)는 심신(心身)을 하나로 묶어
정신이 건전하고 신체 강건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납이 스승님으로부터 금강승선관무를
전수 받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수많은 세월동안 염원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염원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으로 인가 되었고,
원주시 남녘 미륵산 남쪽 자락에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도장을
마련하여 '개원식' 및 '선관무정기수련'
'하계특별수련회'를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개원식 및수련안내에
참석하시어 커다란 격려와 함께
조촐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이 사 장 이 원 욱 합 장

중앙수련원 개원식

▷ 일 시 : 2002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원주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원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1.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행 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단체등 각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2. 참가회비
■ 개인 : 1개월 50만원 ■ 단체 (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3.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체유법 및 참선	15시	선 · 관 · 무 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저녁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 · 관 · 무 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정심공양(발우)		

4. 개 강 일 ■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회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접 수 처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91-0770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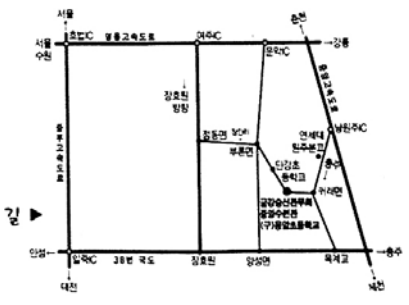
1. 일정 및 내용

기간(3박4일)		내 용
1차	7월 25일 (목요일) ~ 7월28일 (일요일)	禪 · 觀 · 武 수련, · 묵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 (화요일) ~ 8월 2일 (금요일)	
3차	8월 6일 (화요일) ~ 8월 9일 (금요일)	
4차	8월 13일 (화요일) ~ 8월16일 (금요일)	
5차	8월 20일 (화요일) ~ 8월23일 (금요일)	

※초 · 중 · 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도복(별도)
3. 장 소 ■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4. 신청방법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91-0770
5.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6. 수련회비 : 6만원(1인)
7. 입 금 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찾아오시는 길 ▶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옹암리 (구)옹암초등학교 우 220-852
·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3-1 거양 B/D 4층 우 137-849

스님이 감독인 사찰축구팀과 신부님이 감독인 성당 축구팀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

15일 첫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 '보리울의 여름'(제작 강제규 필름)속에서의 결과는 무승부. 아니 애초부터 이 두 팀간의 경쟁에는 의미가 없었다. 축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삶을 보여 주자는 게 이민용 감독(45)의 기획의도였기 때문이다.

사찰·성당팀 '둘에서 하나'로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 시작

축구로 펼친 화합·상생 그려

'보리울의 여름'은 우남 스님이 감독으로 있는 '보리울' 마을의 동네 아이들 팀과 서울서 시골성당으로 부임한 젊은 김 신부의 수녀원 내 보육원팀이 서로 경쟁하다 읍내의 도대표 축구부 아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서로 팀을 합쳐 결전을 벌인다는 내용.

보수적이고 엄격한 수녀역에는 5년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하는 장미희씨, 젊은 김 신부역에는 차인표 씨가 각각 캐스팅 됐다. 하지만 영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남 스님역은 이직 캐스팅이 안돼 감독과 스탭이 머리를 맞대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극중 우남 스님은 시나리오를 쓴 이만희 작가(48·동덕여대 교수)가 '축구하는 스님'으로 유명한 제주도 약천사 주지 성공 스님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점도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민용 감독은 "우남 스님역에는 안성기, 최민식, 조재현 등 거물급 스타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스케줄 때문에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40대 이상의 남자 연기자중에서 걸쭉하고 푼이 굵은 경상도 사투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인물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감독은 "우남 스님역의 배우가 결정되면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희 작가와 함께 제주도 약천사로 내려가 2~3일 동안 머물며 성공 스님의 캐릭터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극중 우남 스님은 코믹하면서도 선적인 내공이 겸들여진 이중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영화속에서 우남사팀과 축구 시합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내려 김 신부가 우남 스님을 찾아가 연기할 것을 부탁하자 우남 스님의 코믹한 선 법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고(go)는 고지요" 하면서 거절한다.

극중에서 우남 스님이 기거하는 우남사의 실제 촬영지는 전북 김제의 귀신사. 소박하면서도 옛 풍취가 그대로 잘 보존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변 경관이 빼어나 극중 사찰의 이미지와 잘 들어 맞는다는 것이 스탭진의 설명.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도 영화 포교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귀신사 인근에는 수류성당과 하율초등학교가 있어 성당과 사찰, 초등학교가 등장하는 영화 속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는다.

영화 내용도 두 종교를 소재로 다루다 보니 시나리오 작가도 이민희 교수가 선정됐다. 이 작가는 1975년 전북 김제 금산사로 출가한 경력이 있으며, 파계 후에는 가톨릭 신자인 부인과 만나 세례를 받고 결혼하는 등 불교와 가톨릭 두 종교를 모두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년전 결성된 한국영화축구단 '아리랑'의 단장일 정도로 축구광인 이민용 감독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보이며 "사찰·성당의 연합팀과 읍내의 도대표팀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이끈 우남 스님의 히딩크 어퍼컷 골 세러모니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개봉 전에 스님들과 신부님, 스텝진들과 함께 축구시합을 벌이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리울의 여름'은 부산영화제 개막에 맞춰 11월 14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보리울의 여름' 촬영지 사진 앞에 서 있는 이민용 감독.

주인공역 실제모델 약천사 성공 스님
촬영지 김제 귀신사… 옛 풍취 잘 보존



◇영기대사의 '종도가'를 화제로 부처의 참선 모습을 형상화 한 '적(寂)'

석용진 씨 대구서 11번째 문인화展

담백·고전적 기품 풍겨

빛바랜 한지 인두로 다려 수묵으로 처리
'대숲에서' 한액자에 다양한 소재·배경

문인화의 품격과 고졸(古拙)한 맛을 유지하며 심물론(心物論)적 철학에 입각한 신기운의 필묵운동을 전개해 온 석용진 씨(46)의 11번째 문인화전이 대구 대림당화랑에서 3일 열린다.

얼룩이 배이고 접은 자국이 선명한 삭은 느낌의 종이와 묵은 삼베조각보의 빛깔을 연상케 하는 바탕 위에 수척해 보일 정도의 가는 필선으로 유려하게 쓴 화제(畵題) 글씨는 담백한 맛과 더불어 고전적인 기품마저 들게 한다.

30여점에 이르는 이번 작품들은 제작 방법상 세가지로 구분된다. '허선(虛線)', '백치(白痴)', '무용(無用)', '애련(愛蓮)' 등은 종이를 빛바랜 고지(古紙) 맛이 나게 인두로 다림질한 후 그 위에 수묵으로 처리하거나 화제를 썼다. '대 숲에서', '숲 속에서 길을 잃다' 등은 한 액자에 다양한 소재나 배경을 앉혔다. 또 흰 화선지에 현대적인 기법으로 화조를 그린 '연(戀)'도 눈여겨 볼만하다.

손병철(서예평론가)씨는 "석씨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통문양이나 도자문양, 새, 꽃 들은 얼핏보면 공간배열이 서로 무관한 듯 해 보이지만 화제의 위치와 함께 치밀한 현대적 감각의 구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석용진씨는 99년 한국문제작가초대전에 이어 2001년에는 한국 서예 정예작가 10인에 선발되기도 했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mi@buddhapa.com



'부디즘' 테마 남성복 의상展
우영미 씨 파리 루브르박물관서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옴므' 대표이자 패션디자이너인 우영미(44)씨가 2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남성복 컬렉션'에서 '부디즘을 테마로 한 의상전'을 열었다.

우영미씨는 "'이브생로랑'이나 '크리스찬디올' '루이비통' 같은 유명 브랜드와 차별화하려면 동양에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선(禪)적인 분위기의 불교를 테마로 한 의상들은 분명히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충분한 소재"라고 이번 테마를 설명했다. 그러나 "패션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보고 느끼는 것"이라면서 "서양인들이 아무런 설명없이도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던함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담아야 하는 만큼 외형은 서양, 소재는 불교로 풀어보았다"고 덧붙였다.

우영미 씨는 파리나 밀라노 등 주요 컬렉션 참가 경험은 없지만 1997년부터 파리 남성복 전시회(Sehm)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세계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문화강좌

'산사 선식' 무료공개강좌
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스님)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나무학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선식'을 주제로 한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아토피성피부염에 시달리는 유아이유식으로 대용할 수 있는 '연근죽'을 시연한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작설차 전병말이'와 인스턴트 식품을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두부취나물죽순김밥'도 만들어 본다. 실습뒤에는 사찰음식 시식 시간도 마련된다. 02)355-5961

차생활지도자 최고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특강

한국차생활문화연구원(원장 감승희)은 6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차생활지도자 최고과정 특강'을 연다. 이 강의는 △13일 한복과 차생활 복식, 유화경(한국복식사연구원장) △20일 행다예절, 이길표(동신성신여대 가정대학원장) △27일 근대한국 차사(茶史) 조명, 운경혜(한시태학당 당주) △8월 3일 한·중·일 차(茶) 그릇 비교, 강순형(덕수궁 유물전시관장) △8월 10일 청정 차(茶)음식 십선(十選), 선재 스님(사찰음식연구원장) △8월 17일 차(茶) 맛 제대로 내는 다법(茶法) 연구, 감승희(한국차생활문화연구원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732-9027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지내다보니, 하얗게 피었던 앞산의 밤꽃이 어느새 다 지고 말았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수더분하고 탐스런 그 모습이 보기 좋아 가까이 다가갔더니, 길다란 꽃술마다 벌들이 앵앵거리는 게 참 보기 좋았다. 무성한 녹음 속에 여기저기서 하얗게 핀 밤꽃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6월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월드컵이 끝나고 축제의 열기가 식으면서 이제 단조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동안 허전한 마음을 추스리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세대와 지역 간의 벽을 뛰어 넘어 전 국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훌륭히 치러 내고, 또 길거리 응원을 통해 월드컵을 거대한 축제로 승화시켜본 경험은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둔 꿈같은 성적을 떠올려 보니,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프랑스식 비법 이야기가 생각났다.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포도주 회사에선 대를 이어 내려오는 포도주 제조 비법이 있다고 한다. 사장은 임종시에 주위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대를 이을 장남만을 불러 귀에 대고 소곤소곤 비법을 알려준다. "좋은 포도주는 좋은 포도로 만드는 거란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말은, 그러나 새겨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한국 축구가 거둔 성적은 선수들과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 합당한 결과인 것이다.

똑바로 가시오
히딩크 감독의 지도방식
선수들 잠재능력 키워
창의적 축구 하도록

축구는 정직한 스포츠라서, 흘린 땀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다. 주위의 온갖 우려를 물리치고 묵묵히 정도를 걸어온 히딩크 감독은 마치 오대산 가는 길목을 지키는 노파처럼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였다. 무문혜개 선사가 편찬한 〈무문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살았다. 오대산 가는 길이 험하고 길어 이 성지를 찾아가는 스님마다 이 노파에게 갈을 묻곤 했다. 어느 승려가 노파에게 갈을 묻자, 노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똑바로 가시오." 승려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때 놓으면, 노파가 다시 말한다. "뜻뜻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먼."

좋은 축구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제 길로 똑바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갈을 잊혀두고 마냥 돌아서 헤맨다. 히딩크가 보여준 지도방식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축구가 가능해졌다. 좋은 선생이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축구에 정답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따라 무작정 몰려가길 얼마나 겨듭해왔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길은 자연히 나타나게 마련이건만, 우리는 소화도 안 되는 굳은 지식을 받아먹기에 바빴다. 한국축구의 선전을 보며,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숨은 뜻을 다시 새겨본다.

■문학평론가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동국대 TV'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혜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
매주금,토요일 08:50 / 19:55

성운스님 불경강화
매주토요일 10:15 / 20:35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매주수요일 09:20 / 19:15

구본임의 태교와 명상
매주화요일 09:20 / 19:55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목요일 09:20 / 19:15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함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8(공호전기빌딩)

불교TV시청방법 | 유선방송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신청문의 (02)3270-3366~7]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지혜와 복덕 구족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 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1211 사찰순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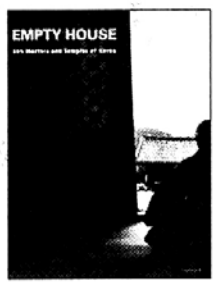
EMPTY HOUSE

크리스 베레베쉬 지음

85개 사찰이야기 영문으로 소개



◇'누각과 문'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가진 부석사 안양루.



"'사찰 = 관광유적지' 인식 안타까워"

법전스님 등 인터뷰 · 선불교 소개도

영문 책자 〈EMPTY HOUSE〉(eastward)를 펴낸 크리스 베레베쉬 씨는 "외국인들이 사찰을 단지 관광 유적지로만 보고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사찰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 또한 궁극적으로 한국의 불교는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영국 출신으로 호주 맬버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씨는 한국정부 지원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돼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가졌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기도 한 크리스 씨는 불교를 집하며 그 해답을 찾는 길을 발견했다고 한다. 5년 동안 한국에 머문 그는 직접 전국 85개 사찰을 답사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큰스님들을 만나 법문을 듣기도 하고 밤새 불교서적을 보며 연구했다.

선(禪)이 일본식 발음인 '젠(Zen)'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국 선 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그 원류를 지키고 있다고 본 지은이는 불국사를 시작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이는 다시 자장율사와 통도사로, 신홍사와 의상대사, 오어사와 혜공스님, 백련암과 성철스님으로 이어진다.

또한 진각국사와 나옹 스님 등의 선시와 법전 · 진제 · 서옹 · 숭산 스님과의 인터뷰를 실어 선불교의 실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 스님의 하루 일과를 묘사한 '선방에서의 하루'에서는 한국의 참선 방식을 소개한다.

각 장마다 실린 사진은 대부분 지은이가 찍은 것으로,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찰의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다. 'Temple of the Buddha Land(불국사)', 'Reality Temple(실상사)' 등 사찰 이름에 담긴 뜻을 풀이해 전달하는 것도 신선하다.

부록으로 전국사찰 지도와 용어해설, 구산선문 계보 등을 실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 값 2만4천원.



미얀마 가는 길 개산스님 지음

1983년 우리나라 주요 각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사망한 랑군 폭파사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 이 외에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또 국민의 88% 정도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인들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평생을 함께 하는 일상생활이다.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이름을 짓고 다섯 살 무렵에 유치원격인 사찰의 예비학교에 보내 예절과 불교적 생활 규범을 배우게 한다.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에는 사원에 들어가 한철을 지내는 '찐뿌'를 치러 불교도로서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게 된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탑들에 둘러싸여 있는 바간, 불교적 설화를 바탕으로 도읍지로 선정돼 현재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의 불교유적을 소개하고 미얀마 스님들의 일상과 미얀마에 있는 수행원의 특징, 일과, 위치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불교유적 유래 · 전설 경전 통해 고증

13년간 인도, 네팔, 티벳 등의 불교유적지를 답사한 개산 스님은 우리나라에 미얀마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해 1년 동안 미얀마에 머물며 얻은 여행 정보를 묶어 〈미얀마 가는 길〉(타타르)로 펴냈다. 지은이는 "성지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신심으로 안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단순한 여행정보가 아니라 불교유적의 유래와 전설을 경전과 문헌을 통해 고증해 그 참뜻을 밝히고 있다.

미얀마인들에게 불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1장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다루고 있다. 역사와 문화, 경제 등 여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2장에는 비자 발급과 구비서류 준비하는 법부터 추천 여행일정, 교통, 투자정보 등을 담았다. 3장은 양곤과 바간, 만달레이 등 각 지방의 불교성지를 소개하고 교통편과 머물 곳 등 구체적인 여행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책 곳곳에 환전시 유의사항과 풍토병 예방법, 불상 구입시 주의할 점 등 경험으로 얻은 알짜 정보도 가득하다. 값 1만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 양문규 시집



양문규 시인이 11년만에 두 번째 시집 〈영국사에는 범종이 없다〉(실천문학사)를 펴냈다.

'… 집을 비운다/모든 것이 일순간//솟구치고 솟구치는 검붉은 피/ 땅속 깊이 스며//옛 생각 꺼안고/나지막하게 엎드려 울 때/저 밖의 바람//꽃나무의 비애 외면하고/화정을 떠난다' (화정을 떠나며)

'절속에 집이 있다' 등 시 70편 담아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총무국장과 실천문학사 기획실장을 지냈던 시인은 3년 전 서울생활을 청산, 충북 영동 천태산 영국사에 머물고 있다. 그는 두 번째 시집에서 자연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소박한 자기 발견이 주를 이루는 시를 선보이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사의 은행나무를 사랑하고, 생명의 소리인 은행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를 썼다는 시인은 "은행나무의 울음을 닮은 시를 쓰고 싶다"고 말한다. '절 속에 집이 있다'와 '영국사 거북바위', '화정을 떠나며'를 비롯한 7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값 5천원.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 실천불교전국승가대 불교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포럼의 공동연구프로젝트 논문집인 〈실천불교의 이념과 역사〉(도서출판 행원)는 실천불교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사상, 이념에 대한 연구의 성과물이다. 책에 실린 논문들은 실천불교운동의 사료화 작업을 해오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불교포럼 소속 연구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연구팀장인 동국대학교 박경준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연구진이 1년간 연구와 내부 토론을 거쳐 완성했다.

1부에서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실천이념을, 2부에서는 역사속의 실천불교 이념과 활동을 살피고 있다. 3부 전망과 과제에서는 참여불교운동의 의의와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값 1만5천원.

새로나온 책



▲바루나, 그 포용의 신화를 찾아서(이동연 지음, 평단문화사)= 종교의 시원을 강에서 찾는 지은이는 고등종교가 나타나기 전 강에는 신화가 먼저 생겨났다고 말한다. 이것이 1차 신화혁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기원전 6세기 무렵 다른 곳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고등종교에 흡수되는 2차 신화혁명을 겪게 된다. 현대 사회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신화가 사라지는 3차 신화혁명의 시기라고 말한다. 때문에 지은이는 생명창조의 사회를 지배할 미래신화는 목적을 향해 돌격하는 신화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 한 잔의 풍경(김창배 글/그림, 솔과학)= 서울 인사동 '담원 갤러리 선'을 운영하며 차 문화 우수성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담원 김창백 화백의 글과 그림을 담았다. '차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란 부제를 단 이 책에는 김 화백의 차 달이는 동승, 경봉 스님이 찻잔 등 그림 136점과 함께 다산 초당과 차 박물관인 제주도 오설록 등 차 문화를 찾아 떠난 여행 이야기, 초의선사와 이규보의 다시(茶詩) 등 117편의 글이 담겨 있다. 값 1만3천원.



▲사랑, 지울 수 없는 그리움(진진욱 시집, 한누리미디어)= '… 가까운 데서는 희미해지다가도/ 멀어질수록 뚜렷해지는 /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은 아니네…' (사랑에 대하여) 전국 43곳 교도소와 구치소에 도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회불교실천회 진진욱 회장의 세 번째 시집. 제4회 한국불교문학상 작가상 수상자이기도 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100여 편의 시를 선보이고 있다. 값 6천원.



▲꿈꾸는 달마(김수용 지음, 책읽는 사람들)= 교통사고로 막내아들을 잃은 뒤 출가해 현재 경기도 청평의 한 토굴에서 지내고 있는 소설가 김수용 씨의 출가 구도일기가 책으로 묶였다.

1987년 중편 '목신의 땅'으로 월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지은이는 '금척' '가위, 바위, 보' 등 3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책에는 문득 출가를 결심한 친구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수행일기와 문단 등단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야기 등의 인생고백을 담았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3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5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6	마음은 없다	데이비드 가드먼	탐 구 사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다 라 니
8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9	차한잔의 풍경	김 창 배	솔 과 학
10	생활수행 이야기	법 상	불 광

도서 안내: (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6일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

10개분과 250명 논문발표, 한국불교학은 51명 참석

화엄학 권위 日 키무라 기오타카 교수 등 참석



◇마에다 센가쿠(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베단타 철학의 권위자.



◇키무라 기오타카(조견대 교수), 동아시아 불교사상사 및 화엄학 대가.



◇이시가미 젠오(삼광문화연구소장), 동국대 석좌교수, 불교문화사 전공.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걸쳐 25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일본 최대의 불교학 단체인 인도학불교학회(이사장 마에다 센가쿠) 53회 학술대회가 7월 6~7일 동국대서 열린다.

한국의 동국대와 일본의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도철학, 인도불교, 초기 불교 등 10개 분과 25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학자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것은 세계 불교학계에 한국 불교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있다. 개최 학교에서 특별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 불교학 관련 분과가 2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학 관련 분과인 7분과에는 국내 학자 25명이, 8분과에는 외국에서 한국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 26명이 발표한다.

한국 불교학과 관련된 발표자 가운데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사 분야와 화엄학 분야의 권위자인 키무라 기오타카(일본 조견대) 교수와 이시히 코우세이(일본 구택단대) 교수가 눈에 띈다. 지난 해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기초 구조〉라는 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던 키무라 교수는 '〈해인삼매〉 고(考)'를 발표하고, 역시 96년 〈화엄사상의 연구〉가 국내 출간됐던 이시히 교수는 '원효 화엄사상의 원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토모 켄요(입정대) 교수가 발표하는 '일한 불교학 교류의 아버지, 김동화 박사의 일고찰'은 한일 불교학계에선 거의 처음으로 김동화 박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지오 겐죠(사천왕사 국제불교대) 교수의 '신출(新出), 원효의 〈승만경의서〉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효의 도솔천왕생관'을 발표하는 후지 요시나리(구주용곡단대) 교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불교에 있어 화엄교학과 밀교와의 융합'을 발표하는 사토 아츠시(동양대 비상근 강사) 씨는 일본 동양대에서 의상 · 균여 화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소장학자다.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는 젊은 학자들의 등용문인 동시에 대가들과 소장학자들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마에다 센가쿠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초기불교의 대가인 마에다 에카쿠 예지학원 교수, 여래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카사키 지게토 동경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불교문화사 전공의 이시가미 젠오 삼광문화연구소장, 불탈연구로 유명한 스기모토 탁슌(가나자와대) 교수, 〈대승열반경〉 연구의 권위자인 시무타 마사히로(동경대) 교수, 다카하시 코우지 경도 불교대학장(정토학) 등이 참석하고, 교단사 연구의 대가인 사사키 시즈카(화원대) 조교수와 중관 분야의 권위자인 사이토 아키타(일본 동대대학원) 교수도 논문을 발표한다.

도림사 괘불탱 등 괘불 7점 보물 지정

17~18세기 호남지방에서 조성된 괘불 7점이 한꺼번에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2분과(동산) 심의를 거쳐 2일 오덕사 괘불탱(보물 1339호), 천은사 괘불탱(보물 1340호), 도림사 괘불탱(보물 1341호 · 사진), 미황사 괘불탱(보물 1342호), 다보사 괘불탱(보물 1343호), 금탑사 괘불탱(보물 1344호), 만연사 괘불탱(보물 1345호) 등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괘불은 야외에서 법회나 의식을 할 때 거는 일종의 대형 걸개 그림으로 현재 조선 후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만 전한다. 국보 7점, 보물 19점 등 모두 26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백지묵서다라니경 등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발견된 21종 27점의 유물과 태안사 동종, 통도사 석가모니불괘불탱, 통도사 괘불탱, 통도사 화엄경변상도,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통도사 청동은입사봉황문향완 등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 문화재는 한달 뒤에 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 '팔상도' '영산회상도'

조선후기 佛畵風 이해 주요자료

이영종씨 발표

경남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3호)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안에 조성된 팔상도(보물 1041호)와 영산회상도(최근 보물로 지정예고), 벽화는 조선 후기 불화 화풍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법화경 견보탑품 변상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담은 벽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희귀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제작 연대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6월 29일 (사)한국미술사학회 130회 월례 발표회에서 이영종(서울대 강사) 씨는 그 동안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만 추정되어 온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제작 연대가 1792년부터 1800년 사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씨는 먼저 영산전 내 팔상도나 벽화의 내용들은 모두 〈석씨원류응화사적〉 불전판화에서 뽑아왔는데도 둘의 내용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 점을 들어 벽화의 제작 시기를 팔상도가 봉안된 1775년 이후로 좁혔다. 이어 주목되는 자료는 현판으로 전하는 '영산전중수겸단확기'와 '각법당초중창기'의 내용이다. 이들 자료에는 화승 지연(指演)의 책임 아래 1792년 영산전 중창시 단청 공사가 이뤄졌고, 정조대에 색깔을 다시 입히는 개채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씨는 "이들 기록과 함께 동서벽의 대형 벽화와 내부 포벽화들이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수법, 설채법 등이 같다는 점에서 1792년에서 정조가 승하한 1800년 사이에 같은 화사들에 의해 벽화들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가꾸기는 국민 몫"

정년퇴임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난 6월 28일 정년 퇴임식을 올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60 · 사진) 소장에게서는 여전히 햇볕과 싸우며 땅을 파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땅꾼'의 냄새가 난다. 69년 문화재관리국(지금의 문화재청) 촉탁 직원으로 문화재연구실(문화재연구소 전신)에 발을 들여놓은 조 소장은 무령왕릉, 천마총, 황룡사터, 감은사터, 안압지, 미륵사터 등 굵직굵직한 발굴 현장에서 30여 년을 보낸 한국 고고학계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6월 25일 문화재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62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2기로 입학한 이후 40년 동안 고고학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았으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느냐"고 감회를 털어놨다.

그러나 71년 하룻밤만에 끝난 무령왕릉 발굴에 대한 회한도 숨기지 않았다. 조 소장은 "발굴 경험이 일천했던 당시 고고학계로선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했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발굴 전담 기구를 통한 전문화된 발굴의 필요성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렇다고 지금 발굴 여건이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발굴의 대부분이 학술조사를 위한 발굴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 발굴이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구제발굴은 유물은 남지만 유적의 흔적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유적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이 사라져 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우리 민족의 발자취인 문화유산이 아직도 천대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조 소장은 "불교계도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불교문화재의 정수만을 모은 불교중앙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각 사찰의 성보박물관도 사찰의 특성에 맞게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3년 6개월 몸담았던 문화재연구소를 떠나면서 조 소장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최고의 문화재 관리이며 보존"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황룡사 가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 조 소장은 경주고적발굴조사단장('76~'90) 국립민속박물관장('94~'97) 등을 지냈다.

불교문화재 정수 모은 중앙박물관 필요
성보박물관도 사찰특성에 맞춰 특화를

장마철 … 문화재 훼손 많다

평균습도 90% … 습기 · 곰팡이 최대 적
통풍 · 항온항습기 점검, 도난에도 유의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성보 문화재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 외에도 습기나 곰팡이, 해충에 의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장마철 문화재 보존은 습기와의 싸움에서 시작된다. 1년 강수량의 30%가 장마철에 몰려 평균 습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목재나 종이류, 섬유류로 된 문화재에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60%다. 금속류는 50% 미만이 알맞다.

높은 습도는 그 자체로도 금속류 유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목재나 종이, 섬유류 유물에는 습기 탓에 생기는 곰팡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탱화가 습기를 빨아들이면 곰팡이가 생기는데, 안료 등과 분해 작용을 일으키면 얼룩이 지거나 탈색되기 쉽다. 목재류는 갈라진 틈이나 구멍에 해충이 자라 내부를 갉아먹을 수가 있다.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당 문을 어느 정도 열어 수시로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소형 제습기를 곳곳에 설치해 두고 방충방균제를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부 벽화의 경우 직접 비를 맞지 않게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한 요령이다.

성보박물관이 있는 사찰에서는 항온항습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수장고나 전시실에 대한 소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독약이 잔류성이 없는 만큼 장마가 끝난 다음 한꺼번에 하는 게 효과적이다.

석탑 등 외부에 있는 석조 문화재는 주변의 큰 나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탑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많은 비로 석조문화재 주변 흙이 유실되거나 토사가 붕괴돼 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수로 점검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태풍이나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인기척을 감지하기 어려워 성보 도난 사건이 빈발하는 만큼 도난 방지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 등 록 금 : 학 생 (1일 – 2만 원, 1개월 – 60만원) 일 반 (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 련 비 입금 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 기 준
▶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봉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5시	좌 선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6시	조깅, 등산	18시	저녁공양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중릉(봉길해수욕장)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등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묵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묵(能印寂默)의 자리에 오르사 진묵이라 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기신 행적은 하도 기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혜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을보고 황급히 달려가 야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농하여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곳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봉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룁니다.

성모암 대중일동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 연꽃축제 대행사장

※ 모든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은 방생금지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코골이, 당뇨, 암, 특효"



달마사 백련스님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찬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십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농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자성삼보 귀의해 계발·체험해 나가야 부처님 불씨 키우는 보리



그림 · 최주현

오늘 법사스님께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되면 항상 법우님들과 같이 더불어 도반입니다. 도반으로 토론하되 서로 말을 하면 말로 듣지 마시고, 서로 뜻으로 또는 행으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고 나가면서 행하는 그런 습을 길렀으면 합니다.

첫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쌀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쉽게 말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망상 자체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이죠. 여러분 빼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태초인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만 듣고 그냥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하는 분들이 행을 못 한다면 그거는 말 하나마나 건성 도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자식과 부모,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 이렇게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서로 서로에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없는 무심(無心)의 자비심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맡겨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정말이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는 거죠.

항상 집안에서 요만한 꼬투리 가지고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자식들한테도 불충분한 말을 하시는 반면에, 춥고 배고픈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벌어지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차원의 그릇이 서로 옳다고 하고 제가끔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옳다고 그러는 걸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으니,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행하는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고, 또는 평등한 마음으로서 부드럽게 항상 말해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자기 주인공에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하심으로 말없이 서로 접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해서 말로 듣게 하지말고, 뜻으로 해서 뜻으로 듣게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무심으로서 전달 없는 전달이 됨으로써 가정은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바로 마음 속에 생명들이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대충대충 얘기하고 넘어갑니다만 여러분이 행을 못하고 가신다면은, 말로만 배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에 선맥이 그래도 제일 우수하다고 보는 이러한 위치에서 볼 때에 말로만 우리가 선맥 선맥하고 부처님의 선도리(禪道理)를 찾아야 한다고 그러지만 이름 없는 정신력을 한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선맥으로서 이어져 내려오는 도제양성은 지금 부실합니다. 모두가 경전에서 백지와 더불어 말씀하신 거와 뜻을 새겨서 우리가 더불어 도반이 돼서 서로 토론하고 가르쳐야 하는 길잡이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불자인 줄 알지 마시고, 우리가 절에 다니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든, 모두가 불자 아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남음이 있으시겠지만,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쥐새끼가 어미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둥우리에 있는 걸 내놓으니까 그 어미는 자식을 못 잊어서 자식을 다 이끌고 다른 둥우리로 들어갑디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거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나 쥐새끼가 사는 거나 살림살이가 뭐이 다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찾고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끼를 몰고 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조그맣게 그냥 날려버렸지만 쥐새끼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다 못해 개구리새끼 하나 쥐새끼 하나, 짐승들 모두가 다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지금 가만히 볼 때에 조그마한 반쪽짜리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원통하고, 또 전자에 역사를 가져온 계기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넓히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이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지 못한 까닭에 역사를 그렇게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증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고 놓는 공부를 쉴 사이 없이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제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고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남북 통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무(無)의 세계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돼서 유(有)의 세계의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람도 잘 수 있고 또는 남북 통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남북 통일을 하려면, 세계가 움죽거려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출가제자든 유발제자든 다 이렇게 모두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저 비는 걸로 족하고, 시루에다 떡 찌기가 바쁘고, 우리 산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귀신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의 마음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으로 인해서, 만약에 컵을 여러분이 쓰신다 하면 여러분이 컵을 쓰기 때문에 컵에 생명이 있고 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써주지 않는다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모아져서 한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방에 가도 도량이요, 마당에 나가도 도량이요, 변소에 가도 도량인 것입니다. 거기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 그 삼세가 그대로 한마음으로서의 귀정(歸定)이 되고, 그것이 한 불심의 기둥으로 바뀌가 돌아가니 우리가 찰나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우리들이 인간 됨됨이가 돼야지, 만약에 인간이 되지 못하고 불심을 가지고도 습을 떼지 못한다면, 깨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미(迷)해지는 그러한 연결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기는 쉬워도 성불하기 어렵고, 성불하기는 쉬워도 열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단계 없는 세 단계를 꾸준히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생과 사가 열반입니다. 생과 사가 그대로 열반과 돌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에요.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공한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둘입니까? 색의 세계가 바로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의 세계요, 공의 세계가 바로 색의 세계요, 어디 둘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공업기술도 극복하여 아주 남 보다 위대하게 급진전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네 나이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정말 쫓기는 그 세월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젊은 분들은 아마 므를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알고 또는 내 것만 알고 남의 거는 모르고, 바다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연구 재료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유교로 인해 넓고 넓은 불법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됐고,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도 못했고, 발전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의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 잘 날 없이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한 덩어리를 그냥 태워버리려 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신력으로서 우리가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찰나의 생활, 자재력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만 하는 절이 아니라 마음을 계발하고 실천을 옮기는 실상을 생활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몸을 24시간 동안 조아리고 앉아서 좌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몸과 마음의 뜻을, 모든 게 공했으니 그 자리에 놓고 그냥 살림을 한다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한다면 그게 좌선이라고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온갖 생활을 다해도 그것이 바로 좌선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나 내 마음 바깥에서나 모두가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공한 도리를 우리가 그대로 안다면 그게 좌선이라고요. 이거는 사도다, 이거는 정도다, 또는 대도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르고 갈라서 한다면 언제 한마음이 되며, 언제 모든 것을 버려서 모두 얻고, 내가 얻어서 전부 내 것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모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며 모두 항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시는 동안에 요새 신행담을 써 오시고 그러는데 너무나 저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출가제자나 유발제자나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 한마디하는 사이 없이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하신 게 없더군요.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이 행을 해나가시는 거를 볼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해나가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나라를 잠자게 할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움죽거려서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앞에도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공을 찾으랬는데 무슨 말할 건덕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슴없이 질문하고, 서슴없이 대답을 받고, 서로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방귀를 뀌기는 뀌었는데 뀐 사이가 없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내가 뜻으로서 받아들였으면 먹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습니다. 그런 뜻을 알아서 서로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문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한 끝에 내가 말을 하고 나면 질문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증동무이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어떻습니까?

어디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나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모두 정말 갸륵한 도인이십니다. 하하하. 제가 이런다고 해서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나도 아직까지 내가 잘 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아마 부처님 나시기 전인지도 모르죠. 나도 이것을 들은 얘기도 되지만 내가 듣기 이전에 그 뜻을 헤아리고 보니까 너무나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연적인 돌부처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돌부처는 별안간에 천둥 번개를 일으키더니 여자로 화했답니다. 여자로 화해서 오백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 뜻을 잘 새겨보시면 또 아주 좋은 결과가 여러분한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백 아들을 두었는데, 그 어머니는 오백 아들에게 나무도 해오고 빨래도 하고 또는 농사도 지으라고 그래서 산꼭대기에 밭을 마련해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까 샘물이 솟아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성장하기까지 어머니가 그대로 잘 이끌어가면서 먹이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서 거기서 항상 밥은 할 수 없으니까 죽을 쑤었답니다. 오백 아들의 죽을 쑤려니까 주걱도 눈을 치는, 뭐 그런 거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부뚜막에 올라서서, 부뚜막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마는 적적 젓고 그렇게 항상 먹여왔는데, 하루는 아들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죽만 한 솥 쑤어놓으시고선 어머니가 간 곳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는 죄 퍼먹고는 보니깐 아, 그 속에 어머니가 빠져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져죽은 걸 보자마자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천둥 번개가 치더니만 그냥 오백 아들도 없어지고, 어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쉴 사이 없이 해야…

머니도 솥도 없어졌답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백두산에 물 고인 것밖에는 없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어머니의 천둥 같은, 돌아가셨는데도 천둥 같은, 번개같이 소리가 나오는데 "너희 중 사백 명은 뒤로 서서 지키고, 이 삼십 명은 내려가는 데에 지키고, 사십 명은 올라오는 데에 지키고 또 한 명은 올라가는 데에 지켜라." 이십 구 명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키면서 물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뭐 강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4개의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 중생을 먹여서 만 중생이 오르고 내려서 마음의 도리를 증득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새겨 본 예가 없답니다.

지금도 백두산에 가면은 올라가는 물 옆으로 한참 떨어져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솟아오른 그 돌은 참 유명하답니다. 또 내려가면서 삼십 명이라고 그랬는데 돌이 바른쪽으로, 내려가는 바른쪽으로 쪽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올라오는 데 왼쪽, 올라오는 데 또 바른쪽이지. 바른쪽으로는 사십 명이 쪼르르니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어머어마한 그 돌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란, 그 돌이 모두 아들들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백 명이라면 그 뒤에 병풍 둘러친 듯한 우거진 산중에서 전부 고개를, 백두산 허리를 두고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뜻이 어떠한 것일까? 무슨 까닭일까? 그 돌부처가 오백 아들을 낳은 까닭은 무엇이며, 그게 없어진 건 무엇이며, 오르고 내리면서 양식을 모두에게 줘서 지금 먹고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죠. 백두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도 구절 구절이 보면 보는 대로, 저는 그것이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길이길이 역사를 두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도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그것을 역력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돼야만이 우리나라도 역사를 앞으로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국민에게 이익만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것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 국내의 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 아니 우주의 일도 삼천대천세계의 일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지금도 그 물이 세 강으로 흐르고 있고 뒤쪽으로 한 강으로 마저 흐르고 있으니, 참 이게 무진법문을 말없이 주는 그런 이치가 아닐까요?

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말이 있죠. 나도 옛날에 들은 얘깁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면서도 그 속에 뜻을 헤아려 봤습니다. 암남나무 절이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께서 큰 제자 비구들과 또는 보살들과 같이 계실 적에 보적(寶積)이라고 하는 장자(長者), 성에서 역시 장자의 아들과, 오백 장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백 장자의 아들과 같이 부처님 앞에 나서서 칠보로 장엄된 오백의 일산(日傘)을 바쳤다 했습니다. 오백의 일산을 바쳤는데, 부처님 위신력으로 그 오백 개의 보배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으며, 또는 대천세계의 모든 일체 만물과 천지를 바로 신등궁(神燈宮) 가운데서 나타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거를 보고 희유하게 생각을 했고 또는 보적이는 찬불가를 지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했답니다.

요 짤막한 말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으며'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오백 개의 보배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뒤덮었으며, 이렇게 했답니다. 그거를 누가 말을 했고 누가 썼는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행하시는 뜻을 적은 사람은 또 누구실까? 또는 부처님 당시에 '큰 비구 제자와 보살들과 같이 계실 때에' 하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비구도 보살도 부처도 둘이 아닌 까닭이요, 또는 상세히 생각한다면 장자라는 거는 내가 나기 이전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 그건 그 장자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공과 몸이, 몸은 마음의 아들이 되고 활용은 보살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백 장자의 아들들이 보배 일산을 바쳤다 그러면 한마음에 포함된 둘이 아닌, 한마음에 포함된 그것을 바쳤을 때에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성불은 했으나 열반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자 한마음으로서 일산을 바쳤을 때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대천세계와 더불어 한꺼번에 그냥 뒤덮었으며 한꺼번에 마음을, 즉 말하자면 요리를 했다 이겁니다. 요리를 해서 그 사람의, 즉 말하자면 대천세계의 모두를 요리를 해서 즉 전골을 만들었으니까 전골을 보여주는 거죠. 전골을 만들어서 전골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여주는 데는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하면은 그 장자 아들들한테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신등궁 가운데서 나타나게 했느니라. 신등궁.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성신의 그 궁 안에 불이 밝혀졌다, 그러니 모든 것을 보게 됐다, 그래 희유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희유한 공덕을 찬미했다 이 소립니다.

☞ 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가 이승과 저승 자기 마음 따라 생기는 것

☞ 17면에서 계속

이것이 모두가 말대로 들지 마시고 백지와 글씨와 연필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자기가 없다면 세 가지가 다 없듯이. 그래서 고것을 뜻으로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적이도 따로 없고, 보적이 아들도 따로 없고, 부처님도 따로 없으시고, 또는 부처님 큰 제자도 따로 없고, 보살도 온데간데가 없더라, 그러니 둘이 아닌 까닭에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망상을 끊지 않고, 끊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놓는다면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놓는 겁니다. 그리고 움죽거리지 않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열반이니라.' 이겁니다. 좌선이 되면서 열반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하나 배워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마는 불가에서는 더군다나 몸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여러분이 애탄지탄하죠. 물론 애탄지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만고만한 자식들을 두고 부모가 죽으면 그 애들이 불쌍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거를 재료로 삼고 공부를 하시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그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으니, 장자 보적이 그 성에서 전체 장자 아들들과, 장자 아들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 장자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장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장자가 깨달았다면 그 아들과 장자는 둘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장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행을 하셨을 때 발꼬락 하나로 오백 개의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뒤덮었으니 얼마나 그 위력이, 아니 부처님만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피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벌써 '아이구, 속상해.' 그러고 피하려고 그럽니다.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단호히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백 명, 스무 명, 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나' 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지 않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갈런지 모르지만 귀신이든 귀신이 아니든, 선이든지 악이든지, 부처든지 마구니든지 누구나가 불성은 똑같으면서 악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다 준다면 아주 부처가 되는 겁니다. 누가 다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도리를 배우십시오. 모든 거를 갖는 도리를 배우지 마시고 주는 도리만 배운다면, 철저하게 100% 준다면 100%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 버려야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야 항복을 받을 수 있고, 항복을 받을 수 있어야 모두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ㄷ· 한생각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질 수 있고, 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의 모든 머리를, 즉 말하자면 물리가 터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질문이 없습니까? 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도인인 척하지 마시고, 도인도 이름이지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서부터 큰 것까지 행하는 데에 그것이 말없이 그대로 평등한 자재천국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시면서 '아휴, 이놈의 세상! 그냥 살기도 귀찮고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길래 바람결같이 흔들리고 저렇게 싸우고 모두 저렇게 하는 세상 아이구!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도리를 배우게 된다면 자재천국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본다면 지옥고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외도가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말씀을 해도 아니 되고 말씀을 안 해도 아니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깐 부처님이 묵묵히 앉아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앉아 계신 걸 보고서 그 외도는 거기서 깨달아서 그냥 좋아서 "과연 사생자부이십니다." 하고 희유해서 날뛰니까, 아난이 "저 사람 왜 저러느냐."고 부처님한테 물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않은 때라 그럴지도 모르죠. 남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그 속을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신행회에 꼭 드셔서 신행담을 말하고 서로 토론할 때에 비로소 내 지혜가 넓어지고, 그래서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것은 내가 자재천국의 내 자신이 자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 없이 무슨 자재천국의 자재력을 그대로 융통성 있게 지혜 있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질문해 봐요.

> 병고든 가난이든
> 잘 안되는 일이든
> 닥쳐오는 대로
> 공부재료로 삼으세요

다 버려야 다 얻을 수 있으니
갖기보다 모든 것 줄 수 있어야…

▲질문자1: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을 깨우치고자 합입니다. 스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꿈을 꾸든가 어떤 걸 봤을 때 대략 그러하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완전히 나라는 의식이 사라질 수는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항상 그거를 간단하게 비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린애가 죽었는데 그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고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는데 지옥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물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고, 불이 불로 보여서 건널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 죽을까봐 건널 수가 없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건널 수가 없고, 귀신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귀신들한테 말려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애를 쓰는데, 어떤 노승이 나타나더니 "불도 불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요, 귀신도 귀신이 아니니라, 따로 없느니라." 하는 말에 고만 불로 어청어청 들어가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려놓은 모습이지, 모습이 없으니까 불에 탈 리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어린애 영혼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허영 많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적인 실험을 자꾸자꾸 해보십시오. 내 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한찰나가 바로 저승이고 한찰나가 이승입니다. 한생각이 빛 보다 더 빨라서 천당에 가고, 한찰나에 지옥에 가고, 한찰나가 바로 이승이며, 이승의 천국이며, 이승의 지옥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말로는 100%를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발견하면서도 습을 떼고, 또 습을 떼면서도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는데 습을 떼고 뭉쳐놓고 가다보면은, 그 보적의 장자 아들이 일산을 왜 받쳤느냐? 칠보로 장엄을 했지만 둘이 아니게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 계단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산을 받치고 열반계의 구정토를 다 증득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데에 참으로 손을 꼽고 기도를 하고 내가 잘되게 하지말고 내 한생각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세요. 어디다가 대고 기도를 하면서 맹종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끌고 다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면은 똑 참하겠는데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왜 그러느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먹는 것도 그렇죠,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니 어떻게 주인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주인공으로 인해서 움직이니 주인공이 적당한 이름입니다.

병고든지 가난이든지 안 되는 일이든지 되는 일이든지, 일체 만법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대로 그거를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세요. 그런다면 앞으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고 한번 쳐다보고 웃고 한번 내려다보고 울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를 겁니다. 학설(學說)로만 알아서 큰스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행하니깐 뭐 물을 것도 없고 자실 것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빨리 하겠다는 생각도 마시고요. 이것은 빨리 하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빨리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그냥, 시간도 공간도 없이 내가 목마르면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두고 셋째 일요일날 또 만납시다. 그땐 질문 하시도록 하고. 또 그때는 무슨 얘기가 될런지 그때 상황대로,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냥 입이 떨어지는군요. 허허허

※위 법문은 1990년 8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장하다! 잘싸웠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우리선수들은 수신토종오가피를 먹고 있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스러운 우리의 젊은이들!
그대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고 있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

지난 98년 아시안게임때 국가대표 11개팀 68명의 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였습니다. 최하위로 전년시즌을 마감한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차지할때도 수신토종오가피가 1년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수신토종오가피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주문 · 문의전화 (02)447-004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행자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락산 백운사
02)939-0221
011)9162-451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천안 보현사
60세 미만
041)554-8486

입산하여 원력을 가지고 수행할 행자모집
▷북한산 노적사
02)353-5016
02)354-7900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행자, 비구스님 (부전)모십니다
▷북한산 선봉사
02)387-8445
016)381-1319

스님을 찾습니다
15년전 서초동 대성사에 계셨던 도문스님 시봉 법미스님을 찾습니다. 희정엄마
019)362-3160

비구니 승려입니다
무보시금을 받습니다.
입금자 : 홍성민
농협 221098-56-06386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물좋고 산세좋은 암자에서비구니행자 가족처럼 불사하면서 같이 사실 분
▷ 나이불문
017)708-0635
정수스님

◎ 모십니다 ◎
무료 양로원에서 입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천혜의 자연조건, 깨끗한 환경
●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30분거리
● 순천시에서 30분거리
● 주소 :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873번지 홍산 보금자리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사주학의 최고봉
기문둔갑 강좌
수강생 모집. 명리 무료강의 : 미래를 예측하고 운기(運氣)를 조정하는 역학의 최고봉
"정통 기문 대가 直講
현재 불교 방송국 개강
초중연구 3개월 금요일
문의처 : 02-703-0108
휴대폰 : 011-775-87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경남 거창군 덕유산 입구 소재 사찰 터 싸게 내려 합니다
016)857-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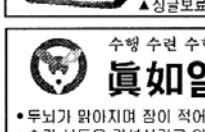
해 원 사
연쇄적 사업실패, 잦은병고, 가정불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며 불면으로 고생 하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031)532-6661

속리산 조용한 암자입니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4)535-0378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고려대장경
간본대장경
속장경
돈황 보장
불사자금관계로 급히 양도 합니다
054)853-385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창수건강 **돌침대 볼 大 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사계절용)
돌침대는 세멘바닥의 사기(邪氣)와수맥을 막아줍니다.

▲싱글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행 자 모 집 [남]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동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슴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053)474-8228]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담사후 결정
031)952-790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가 2층건물 약 20평
● 포교당 최적지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1000만원
011)753-0768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시내 2층 53평 법당주방 방 각 1개씩 보증금 17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내방 후 절충
011)9638-822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대지 140평 건평 47평
● 법당완비
● 비구니스님 수행공부 적합
● 가액 : 2천 3백만원
연 화 암
054)862-5027
011)9590-5027

수행 수련 수험생 전용 齋食
眞如일체 완전 食
• 두뇌가 맑아지며 장이 적어집니다.
• 송과 선등을 각성시키고 의식의 개화를 촉진시킵니다.
• 기슴 및 전신의 세맥을 열고 차크라의 흐름을 순일하게 합니다.
• 허리.다리.장 등 온몸을 좋게 하고 기운이 나게합니다.
• 영양학적인 측면과 한방의 학적인 오랜검토를 거쳤습니다.
• 최고급의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효능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완벽과 최고를 향한 집념
無漏行, 眞如의학연구소
011)9715-6071 / 02)988-84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1동
● 대지 : 67평(255m²)
● 건평 : 1층 법당 40평 지층 요사 40평 방 5개 2층 지장전 20평
● 가액 : 3억 5천
● 현재포교원 운영 중. 스님 신병으로 급 양도 함
꼭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2)2292-7295/016)824-0946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용두동 (호수돈 여고 바로 앞)
● 건물 : 임법당(삼존불모심) 거실, 주방, 다용도실
● 시설비 일체 : 3백만원 월세 : 28만원
대전, 서대전역 5분거리로 개인 암자로서는 최적
011)230-5387

사찰안내
● 위치 : 대전 - 논산 중간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요사,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 법당 불사 중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사찰안내
● 위치 : 양산시 효계동 원효사
● 법당 : 20평, 단청 필
● 요사 : 30평
● 20년 역사 산신영험기도도량
● 매매, 전세, 1년새 모두 가능
055)385-8605

포교당 안내
● 불심이 깊은 수원에서 포교당 하실 스님
● 삼존불, 후불신중 · 지장 ·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 15평, 스님방 5평)
● 주방시설 완비, 수원역 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1)313-0206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논산	• 위치 : 서울
• 법 당 : 23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27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100평	• 요 사 : 110평
• 부 지 : 166평	• 부 지 : 900평	• 부 지 : 175평
• 가 액 : 3억 7천	• 가 액 : 3억 8천	• 가 액 : 9억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천동에서 택시로 20분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 밭 6천평
● 특징 : 산새수려하고 송림 울창한 적정처 주위의 송이버섯 많이 남. 꽃나무 유실수 다수. 조건수려 전기, 전화있음 ● 가액 : 6천만원
051)257-0052
018)762-4387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4150평
강원도 영산이 사방에 있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진입로에서 10분거리에 들어서면 깊은산속같은 민기없는 청정도량임 뒤에는 높은 돌산이 앞에는 일급수가 흐르는 보기드믄 도량임
종교부지 최평 토목, 진입로, 조경완료. 현장을 보시고 확인한다음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2억 2천(꼭 인연있는 분만 연락 요망)
011)321-019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18)471-573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이 사람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처럼 이 발길 저발길에 채이고 잡초처럼 짓밟히며 52년을 한줌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잡초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부처님처럼 인자하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보듬어해 품어주실 보살님이 계시지만 미천한 인간이오나 당신의 충복이 되어 지구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한목숨다 받쳐 보필하겠사오니... 이 못난 인간을 구제하여주실 보살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64-17호
■016)764-4404 : 이 진 명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내 소재
● 대지 : 95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3억 3천 (대출가능)
● 산새 좋은도심 사찰 임
● 위치 : 진주시 근교
● 대지 : 6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3억 5천
● 역사깊은 좋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장안리 223번지
● 가액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 인법당 30평, 산신각 4평 양로원 신축 중, 연건평 93평 1층 53평, 2층 40평
011)345-332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200평 이상)
● 건물 : 임법당 10평, 요사 15평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8천만원
055)852-4130
011)879-479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지층 방2개 사무실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 70만원
017)217-2219

사찰안내
● 위치 : 안성 죽산 부근
● 부지 : 2000평 (1년 도지 쌀 두가마)
● 건물 : 요사채 60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용궁각 4평
● 가액 : 4000만원
※ 사찰 경매 차량 진입 가능
017)215-7622

사찰양도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땅 : 650평, 평당 40만원
● 특징 : 건물 20평 포교당이나 절 지음에 최적지, 유동인구 多, 바다가 보이며 공기 좋고 경관이 수려
02)6245-8710
018)603-871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평수 : 대지 300평 건평, 요사채 1동 40평 법당 8평
● 가액 : 1억 7천
055)744-2167
011)541-8420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 면적 3000평 중에 종교용지 600평 법당 40평 요사채 22평 부속건물 40평
답사 후 결정
011)671-0987
031)529-21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건물 : 4층 건물 중 3층 50평
● 법당, 주방, 방 3개
●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4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017)843-914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7평
• 요사 : 50평
• 가액 : 3억 8천만원
※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급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5,500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거의 새집
061)762-2630

암자용도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사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㊴

●박일라훔금강 수인●



1. 박일라훔금강 수인은 두손을 주먹쥐고, 손목을 교차한 형태다.
2. '이' 소리를 내면서 팔을 옆으로 쭉 편다. 이때 손목을 밖으로 꺾는다.
3. 앞의 동작이 완료되자 마자 손을 처음의 자세로 한번에 당겨와 제자리에 둔다



발 뒤꿈치 올렸다
단전 수축하며 굽히기

4. '뭐' 소리를 내면서 발뒤꿈치를 올렸다가, 단전수축하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린다.
5. 이때 박일라훔금강 수인을 취한 두 손도 위로 올린다. 올렸던 두 손을 처음의 자세로 한번에 당겨와 제자리에 다시 둔다.
6. '꼬' 하는 소리를 내면서 무릎을 서서히 펴 바로 선다.
7. 마찬가지로 손도 함께 올렸다가 제자리로 한번에 내려온다.



해외 성지순례



한반도를 얼광의 도가니로 들끓게 했던 월드컵이 끝났다. 이제 직장인과 대학생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인 휴가철과 방학이 시작된다. 휴가와 방학은 해외에 나가서 견문(見聞)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불자들이라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떠나는 해외 성지순례에 한 번 도전해 볼만하다.

특히 성지순례는 일반여행과는 확연히 다르다. 복장부터 마음가짐, 여행지, 현지문화정보 등 성지순례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떠나는 것이 좋다.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티베트 장쩨에 있는 '초르텐' 사원. 108개의 방이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기도 공간이다.

☞성지순례 전문가 조언에 귀기울여라

불교 성지는 보통 산간오지나 벽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교통편이 불편할 수 있다. 전문 여행사의 성지순례 상품이나 맞춤여행을 이용하면 미리 예약된 교통과 숙소를 이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 전문 여행사의 상품들은 일반 여행사들과는 달리 대개 기도나 참배 순례자들을 위해 현지 사찰이나 근접 거리에 숙소를 지정해 놓은 곳이 많아 성지순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가이드나 인솔자의 경우도 불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을 채용해 알찬 성지순례를 만끽할 수 있다.

혜초여행사 석채언 사장은 "여행사를 이용할 때 값싼 덤핑상품은 현지에서 옵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여행사와 비교해 10만원 이상 가격이 싸면 사전에 포함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름에 가볼만한 성지

여름에는 고원지대에 있어 시원한 티베트와 네팔을 비롯해, 12년만에 돌아오는 철마년을 맞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수미산(카일라스), 실크로드, 중국 구화산, 미얀마 등을 선택할 만하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의 겨울궁전이었던 포탈라궁을 비롯해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타쉬룬포 사원, 쿰붐사원, 드레풍 승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보통 8~11일 정도의 상품들이 나와있다.

광활하고 깊은 사막으로 덮여진 서역을 가로질러 일찍이 세계문화의 가교였던 실크로드 여행에서는 병마용의 도시 서안을 출발해 돈황, 우루무치, 파미르 고원의 산중도시인 탁스쿠르칸(3600m), 실크로드의 집대성인 신강위구르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업장소멸을 의미하는 '철마년'에 찾아와 수행을 하면 11년동안 공덕이 쌓인다고 해서 많이 찾는 '수미산'도 가볼만하다.

출발전 현지 교통·숙박 등 충분히 검토
수미산·실크로드·중국 구화산 백미
티베트 여행땐 2일전 고산병 예방약

휴가가 짧은 직장인들이라면 4~5일 일정인 보타산, 구화산, 황산 등을 권해볼만 하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특수지역인 티베트는 평균고도 40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고산병에 대한 위험이 따르며, 티베트는 현재 중국에 속해있는 미묘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따르는 특수지역이다. 또 티베트는 중국비자외에 '여행허가서'가 별도로 필요한 곳이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티베트내에서 여행허가없이 다니는 것은 여행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다. 고산지역인 티베트를 여행할 때에는 '다이나막스'와 같은 이뇨제를 2일 전에 복용해 고산병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화적 편견을 갖지 말자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는 음식을 맨손으로 먹는다. 이 문화를 더럽다고 생각하면 여행할 수가 없다. 그들 음식은 우리 빈대떡처럼 생긴 것이 많아 이것을 찢어 싸 먹기에는 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고기가 주식인 서양은 칼로 썰어야 잘 썰리고 한국의 밥은 숟가락으로 퍼야 잘 퍼지는 것처럼 각 나라의 문화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준비물과 환전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니만큼 기도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날씨가 비슷한 여름이나 티베트, 네팔 등은 약간 쌀쌀하므로 긴 옷을 준비해야 한다. 고산지대에 가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통약 등 상비약도 미리 준비해가자. 환전은 중국, 실크로드, 티베트에서는 중국돈인 인민폐가 사용되므로 국내의 시중은행에서 미리 환전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도 여행시 발생할지 모르는 귀중품 분실사고, 질병,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미리 국내에서 들고 가는 것도 필수 준비사항중에 하나다.

도움말: 혜초여행사 석채언 사장

여행수칙

단체관광시 ——

1. 외국인에게 한국말로 반말, 욕설을 하지 않는다. 2.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지 않는다. 3. 사진촬영 금지 구역을 준수한다. 4. 흡연시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한다.

비행기 안에서 ——

1. 타인에게 좌석변경을 요구할 때는 정중하게. 2. 기내 담요를 가져가지 말자 3. 술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자. 4. 승무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전문여행사

△혜초여행사: (02)6263-3900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대승항공여행사: (02)730-0202 △일광여행사: (02)736-6272 △반야여행사: (02)730-0020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깊은산 두메생식

건강식품

생식이란 곡식, 야채, 해조류 등 식물성 식품을 가공하지 않고 먹는 것을 말한다. 날 음식을 섭취한 원시인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수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화학조미료와 방부제 등이 첨가된 가공식품을 쉴새없이 먹고 있으며, 과식 및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상화영농조합에서 출시한 '깊은산 두메생식'은 식품 공해로부터 우리몸을 지킬 수 있는 영양식. 팥, 수수, 기장, 옥수수, 감자, 죽염, 마늘, 은행, 표고버섯, 율무, 보리 등 20여가지의 유기농산물과 활성효소가 들어있다. 또 일반식, 학생식, 다이어트식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어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이어트식은 위산 분비 억제물들을 적절히 배합해 비만인 사람들의 식욕을 줄이도록 했으며, 장의 유동운동에 유익한 유산균들을 첨가해 노폐물을 걸러내도록 했다. 식사대용으로 미지근한 우유나 두유, 기호에 따라서는 국이나 차 등과 함께 타 먹으면 좋다. 1박스에는 40g짜리 64포가 들어 있다. 가격은 할인가 14만9천원. www.mahamall.co.kr, (02)732-1520

팥·표고버섯 등 20여 유기농산물 배합
일반·학생·다이어트식품 등 3종류

프레미엄 고품격 생식



新 동의보감 (4)



김 승 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여름 건강법

찬 음식 너무 즐기지 말고 배 따뜻하게
적당히 땀 흘리며 늦게 자고 일찍 기상

무더운 여름, 괄다리에 기운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신도 흐릿해지고 동작이 게을러진다. 소변이 힘없이 잦아지고, 대변은 설사처럼 무르고, 몸에 열이 있고 갈증이 나며 입맛을 잃어 제대로 음식 섭취를 못하고 밤에는 무더워 잠을 잘 수 없다. 누구나 날씨가 무더워 지면 만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여름을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기운이 약한 사람(氣虛者)과 뚱뚱한 사람(濕熱者), 그리고 체력이 정상적이어도 여름철에 과로하기 쉬운 직장인, 수험생 등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동의보감에는 사계절중 여름철의 건강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여, 특별히 여름철 건강법(夏暑將理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얼음물이나 찬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말며,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한다. 더운 여름에는 위(胃) 대장(大腸) 등 내장(內臟)이 차가워져 문제가 되므로, 따뜻한 기운의 음식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삼복더위에 삼계탕이나 보신탕 같은 더운 음식을 즐겼던 것이다.

둘째, 적당히 땀흘리는 활동을 해서 냉방병을 막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여름철에 양기(陽氣)를 발산시키는 활동시간을 늘이고 수렴(收斂)하는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이 음양(陰陽)의 이치에 합당하다. 또한 에어컨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냉방병에 걸리는 것은 억지로 땀의 배출을 막아서 정상적인 양기의 발산을 막은 결과이다.

셋째, 여름에는 술과 성(性)생활을 절제하며, 삼복 더위에는 특히 삼간다. 여름은 심장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신장이 쇠약해지는(心旺腎衰) 시기이다. 따라서 성생활을 절제하여 정기를 단단히 길러야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여름에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 삼복의 심한 더위는 기운을 많이 상하지 하므로 주색(酒色)을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

대체로 더위에는 기운이 부족하여 문제가 된다. 기운이 부족한지 여부는 식욕이 잘 나타낸다. 만약 여름 들어 확연히 입맛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기운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다. 청서익기탕, 황기인삼탕을 써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으며, 여름 감기에는 기운을 보충하면서 이향산으로 조리한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육六임壬래來정情비秘법法

◎ 혁 신 판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全12卷)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활인전문천역자용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 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 · 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바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 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 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비디오강의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숙 입강안내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불교 이래서 좋다

한재웅 제주대 불교학생회장

"마음에 평안…공기같은 존재"



내가 처음으로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외할머니 때문이었다. 외할머니께서 방안에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계셨기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함께 자랐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불교 학생회의 문을 들어서게 되면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고, 지금은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제주대학교 지회 회장을 맡아, 제주지역 청년법우들과 법을 나누고 있다.

사실 난 고3시절이 가장 힘들었다. 뒤죽박죽 얽힌 집안일도 힘들게 했지만, 대입수학능력시험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뒤숭숭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항상 서귀포에 있는 정방사를 자주 찾았다. 내가 회장을 맡았던 절이기도 한 이곳은 정말로 조용해 혼자서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무언지 모를 안도감과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군에 있던 시절, 특히 힘이 들 때면 항상 〈반야심경〉을 마음속으로 독송 또 독송하였다. 그리고 나면 터질것 같던 마음에 평정심이 돌아왔다.

이렇게 항상 힘들 때마다 불교는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불교. 나에겐 한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에 힘들거나 지칠 때면 여전히 내 삶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반야심경〉, 그리고 나만의 아지트 서귀포 정방사. 뭐 하나 특별히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갈 때, 이곳을 언제라도 찾아간다.

불교를 알면서 늘어난 소중한 추억들. 앞으로도 불교를 통해서 많은 추억을 갖게 될 거다. 올 여름 방학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짬을 내 산사수련회에 가려고 한다. 철저히 나와의 싸움에 정면으로 부딪쳐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담배를 끊읍시다

청소년 흡연 나쁜 이유

① 신체 발육 단계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에 치명적이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회지 3월호에 따르면,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므로 비록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발표했다. 또 이 연구 논문은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담배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피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② 청소년기 흡연 시작은 성인기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성에 더 깊게 빠지게 된다.

발육단계 조직 · 세포에 치명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 시작 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심한 니코틴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씩 높아진다"고 밝혔다.

③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흡연은 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와 비행에 연관되어 있기에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로 문제가 파급될 수 있다. 또한 지적 · 정서적으로 성장기 흡연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두뇌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사고 능력과 의욕을 감퇴시키게 된다.

신나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무더운 여름. 새싹불자들만을 위한 신나는 여름방학캠프가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가 주관하는 제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가 '자연과 함께, 미륵부처님과 함께'란 주제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법주사와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자연과 함께, 미륵부처님과 함께' 주제
본사, 법주사 · 유스타운에 어린이캠프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자연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심성계발 프로그램에 비중을 뒀다는 점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참가한 새싹불자들이 율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새벽예불 · 선체조 · 참선교실 집중력 길러
구도여행 떠나기 · 수영 · 축구 등 재미 '한껏'

올해 열리는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는 예년과 달리 어린이들의 정신력 집중과 향상을 위해 새벽예불, 선체조 등의 '아침참선교실'이 운영되는 한편, 명령지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을 불교적으로 응용한 '구도여행 떠나기' 프로그램이 유스타운에서 법주사까지 진행된다. 또한 수영 · 축구 · 농구 · 스포츠댄스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활 스포츠 교실'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평소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와 즐거움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부다피아캠프를 주관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이성훈 연구국장은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됐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한층 성숙한 불자로 태어나는 신나는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질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의 동참금은 6만원, 3백 명 선착순 접수. (02)738-7860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6월 21일 준공된 동대부고 '정보화센터' 건물 전경.

동대부고, 정보화센터 준공

연건평 650평 LAN시스템 · 컴퓨터교육실 갖춰

동국대 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는 21세기 정보교육을 위한 정보화센터 준공식을 6월 21일 가졌다.

개교 55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동국학원 이사 현성 스님, 학부모, 동창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01년 11월에 착공해 7개월의 공사로 완공된 정보화센터는 지상 5층, 연건평 650여 평 규모의 철골조 건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LAN 시스템 설치는 물론, 컴퓨터 교육실, 교내 정보망 구축 등 각종 첨단 시설을 구비했다. 이에따라 동대부고의 정보교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 단신

울산 파라미타 청소년協 6일 통도사서 발대식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울산지부(지부장 현문, 통도사 주지)는 6일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다. 울산여고, 학성고, 농소중을 비롯 13개교를 중심으로 출범하는 울산지부는 △5개 지회별 문화재 답사 및 야영법회 △사생대회 및 백일장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011-885-1962, 농소중학교 전현수 교사)

아동상담 · 놀이치료 강좌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은 7월 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강당에서 '아동상담-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란 주제로 강좌가 열린다.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과 복지사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놀이치료의 이론 및 사례중심별 소개, 모래상자 만들기, 미술활동 등의 놀이치료 시연 등이 꾸려진다. (02)421-6077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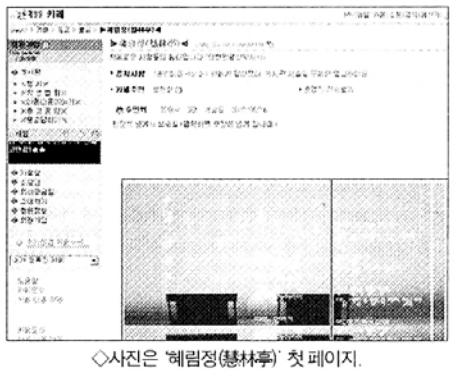
새내기 불교동호회들

△ '혜림정(慧林亭)' (http://cafe.daum.net/dirtkik)-6월 16일 개설. 인천 만월산 약사사의 카페. 생사 안내는 물론, 학생법회, 아름다운 이야기, 음성공양, 묻고 답하기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달마사(http://www.freechal.com/dalmasa1)-6월 23일 개설. 달마사 커뮤니티.

△호랑이 모임(http://cafe.daum.net/hoku)-6월 9일 개설. 호국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 모임. 법사님 말씀 코너와 염불당에서, 아무도 모르게 2층에서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www.달마.com(http://cafe.daum.net/108dalma)-6월 6일 개설. 불교미술연구원, 청람아트센터에서 꾸미는 곳이다. 달마도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코너, 불화, 토분아트, 초상화, 이야기방 등으로 나눠져 있다.



◇사진은 '혜림정(慧林亭)' 첫 페이지.

△창원 성주사 불성 8기(http://cafe.daum.net/bulsung)-6월 25일 개설. 창원 성주사 출신 8기 모임 회원들의 방.

△이 몸은 움막에 있을 지언정(http://cafe.daum.net/ktsasa)-6월 24일 개설. 움막지기 무불(無佛)방에는 주인장 무불의 마음 한조각 엿볼 수 있는 글들이 올라있다.

△나를 찾는 불교모임(http://cafe.daum.net/hanilkg)-6월 24일 개설. 현대문명 속에서 그동안 내가 걸어온 발자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찾자는 취지로 열린 카페.

△호국적성사(http://cafe.daum.net/gaenyumbumsa)-6월 22일 개설. 군법당 호국정성사를 돌보는 군종병이 꿈꾸는 세상.

△ we buddha(http://cafe.daum.net/lbu)-6월 20일 개설. 성문사의 어린이 법회 카페. 김빛나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카페이다.

△인사모(http://cafe.daum.net/ingaksamo)-6월 19일 개설. 인각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사모 카페를 통해 학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각사에 대한 발견을 하고자 한다.

△수원대학교천마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sub108)-6월 19일 개설. 수원대학교 천마불교학생회의 모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목표다. 강지연 기자

희소식
圓 梵 音
범종! 범종! 자명(自鳴)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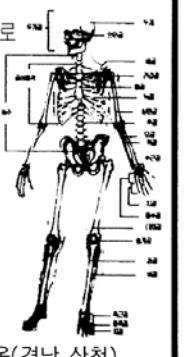
歸依三寶 하옵고,
諸方寺庵 住持스님께 이 기쁜 소리가
메아리 되사이다.
小人이 十餘年前에
부처님의 生死解脫法이
世上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發願!!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佛巖寺 梵鍾에
自動시스템을 설치
춘하추동 四時節 朝夕禮佛 時間과
正午에 人跡이 있고 없고,
크나큰 鍾에서는
치는 이 그림자도 없이
圓梵音이 三世를 뚫어
오늘 지금까지 또 다함없는 미래까지
울려 울려 퍼져
모든 衆生苦는 사라지고
解脫의 法悅이 充滿함이여!!
寺中外護와 佛事에 餘念 없으신
존경하는 거룩하신 스님들께
작으나마 편이를 드렸으면 하고!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불기 2546壬午年. 오월. 단오.
부영공업사 대표 신 현 직 두손모음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다 이 어 트
단지 몸매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과 인생까지 변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 명산을 오가며 한방에 관심이 많으신 법우스님.
만병의 원인인 비만으로 인하여 다이어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선전광고에 의존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순수 한방 약이면서 무독성으로 탁월한 효능이 입증된 한방 다이어트 약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그동안 2000여명의 복용자 중 95%의 효능이 입증된 전주 W대 한방병원 임상실험 결과 한방다이어트 약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기 순환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 속의 유해 수분과 지방질 흡수작용을 강하게 하여 한달복용으로 4~5kg 감량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인류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비만의 합병증인 관절통을 치료하며 외형적 변화가 놀라워 변화된 모습에 주위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며 본인도 상쾌하고 가벼워진 자신의 몸매에 감탄할 지경입니다.
체중 감량 후 나타나는 요요현상을 다스리는 방지책이 준비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안성맞춤이라 하겠으나 좋은 만남도 불가의 인연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순이익금을 불사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우합장
비만에 특효
(한달 복용 4~5kg 감량)
■ 한달 분 가격 : 30만원
■ 전화 주문 시 택배 무료배송
■ 주문 상담문의 : 011-615-7630
농협 100115-52-232981 김종석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반야심경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 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육탄용사스님' 자비행 30년



◇금봉스님(왼쪽)은 30년동안 무의탁노인과 고아들을 정성껏 돌봐왔다. 사진은 익산보훈지청장이 스님을 위문하는 모습. 사진제공=익산보훈지청

금봉스님 6·25때 포탄안고 적진에
54년 출가…고아·무의탁노인 도와

불편한 몸으로 무의탁 노인과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30년째 돌보는 자비행을 펼쳐온 스님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정읍시 상평동 용화사 주지 금봉(70) 스님이 그 주인공. 더구나 스님은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중서부 전선에서 포탄을 들고 맨몸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육탄용사로 허리와 하반신을 크게 다친 4급 상이용사여서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은 철원과 연천 일대에서 수도사단 등 7개 사단이 중공군과 맞서 싸워 생존한 3인의 용사를 기려, 국방부가 경기도 연천 태풍전망대에 세운 동상 '3인의 용사' 중 일인이기도 하다.

11살때부터 김제 금산사에서 자란 스님은 51년 입대해 3년여의 군생활 끝에 수류탄 파편과 총탄이 박힌 몸으로 전역, 54년 정읍 내장사에서 보명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71년 지금의 용화사에 터를 잡은 스님은 전쟁의 참상을 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대로 무의탁 노인과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자신보다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동안 용화사에서 돌봐 온 노인과 아이는 16명.

노인과 아이들이 속을 썩인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스님은 용화사에서 모시던 무의탁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경내에 추모비를 세우고 넋을 기리는 한편 고아들은 공부와 결혼을 시키고 생활터전까지 마련해 주었다. 결혼해 스님을 떠난 3명의 고아들은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금봉스님은 "불연으로 생활하고 있는 스님의 신분에서 마땅히 해야할 도리를 한 것 뿐"이라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제2회 일연문화제 14일부터

8월16일까지, 청소년 백일장·학술대회 등 열어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는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스님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일연 문화제를 14일부터 8월16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 백일장, 학술대회, 시낭송회, 추모다례제가 잇달아 열린다.

먼저 14일 오전 11시 인각사 내에서 전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백일장을 연다.

일연학 학술세미나는 8월14일 오후 1시 군위군청 강당에서 문명대 동국대교수의 사회로 열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흥식 교수가 '삼국유사의 편찬자와 편찬시기', 성균관대 천해봉 교수가 '판각 및 제조 장소'와 관련된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삼국유사 목판본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찬했는지에 대해 학계의 주장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 중론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다.

8월15일에는 인각사 경내에서 시낭송회와 사물놀이 국악공연을 펼치고, 일연 스님이 입적한 8월16일(음력 7월8일)에는 추모다례제가 봉행된다.(054)383-1161

김재경 기자

미국에서도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 불교학교'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과 뉴욕불광선원 등은 여름 방학을 맞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치부 또 초등학생을 위한 불교학교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뉴욕불광선원(주지 휘광)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찰에서 '뉴욕불광선원 어린이 하계 불교 수련회'를 열었다.

美서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열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뉴욕불광선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불교학교를 열어 참선,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주지 원공)은 방학을 맞은 중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일부터 3일까지 '한마음 여름 불교학교'를 연다.

두 사찰의 여름 불교학교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민족 종교'인 불교를 통해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범어사 스님과 신도, 금정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100여명은 6월25일 부산시청앞에서 교문 앞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미주불교포교 회고
美삼보사 심포지엄

미국 캘리포니아 삼보사(주지 범휴)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미주 불교포교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갖는다.

6일 삼보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의 지난날에 대한 성찰과 발전적인 미래' 주제의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내 한국불교 전문가 등 미주 포교의 산증인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에는 이홍영 UC버클리대 교수를 사회로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김형근 미주현대불교발행인, 조은수 미시건 주립대 교수, 김재범 전 I.C.C 교수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무너진 원칙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6월26일 오전 조계종 교육원장실에서는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스님과 교육위원장, 역경위원장 등 종단의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승가대학 인가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승가대학은 불국사, 파계사, 수덕사 승가대학 3곳이었으며, 불국사 승가대학은 심사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파계사와 수덕사 승가대학 심의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파계사 승가대학의 경우 사교반과 대교반 강의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반면, 6개월 이내 건물 확보를 조건으로 인가해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덕사 승가대학은, 학장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와 조건이 미흡해도 총림에는 강원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그리고 논의 끝에 파계사 승가대학은 보류, 수덕사 승가대학은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가 진행되면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수덕사 승가대학 학장의 자격문제였다. 조계종이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학장 자격을 승랍 20년 이상에 강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덕사 승가대학 학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임명된 데다 승랍도 10년 밖에 되지 않아 명백히 자격미달이었다.

반면 파계사는 실지조사 결과 7개 인가 요건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고도 2개항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덕사와는 달리 인가가 보류됐다. 파계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조계종단의 승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들은 결국 원칙보다는 명분을 택한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간부들은 매달 원로스님 친견법회를 진행하며 신행혁신을 다짐한다. 6월12일 물갑사 조실 지종스님을 방문한 20여 임원들.

매달 원로스님 순례친견
중신회, '신행혁신' 다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세 달 째 원로스님 친견법회를 진행해 새로운 신행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6월 12일 원로의원 지종스님(불갑사 조실)을 친견한 것을 비롯 그동안 친견한 원로스님은 조계종 종정 법전,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등 세 분. 중앙신도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경남 함양 황대선원에서 원로의원 성수 스님도 친견할 예정이다.

12일 지종 스님은 "참선을 해야한다. 참선이 어렵거나, 나이가 들어 정신이 쇠약해지면 염불을 열심히 해야한다. 무엇이든 나에게 와 닿는 것으로 한가지만 믿고 나가라"고 당부했다.

중앙신도회는 매번 신도회 간부들이 20여명씩 참석해, 신도회의 나아갈 방향과 재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및 수행지침을 원로스님에게 묻는 등 신행을 중시하는 신도회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아래, 매달 고승 친견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교문앞 24층아파트 "웬말"

정문 20m거리 범어사등 교육환경 고려 백지화 요구

종립학교인 부산 금정중학교 정문 20m 거리에 24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범어사 스님, 학부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화종합건설에 의해 추진중인 이 아파트는 금정중학교 서편 담장과 맞닿아 있으며 학교 정문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져, 허가가 날 경우 학교의 조망권과 수업환경이 크게 침해받는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둔 24층 92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 학교 법인 사찰인 범어사 스님, 학부모, 학생 등 1백 여명은 6월 25일 부산시청앞에서 건축 허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여여선원장 정여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스님, 학부모 및 학생 대표는 "교문 입구에 고층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발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을뿐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주상복합건물로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부산시교육청 황윤식 계장은 "직접 방문해본 결과 아파트 위치가 학교의 조망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통도사 뒷산 이름
'영축산'으로 결정

영취산 등 4개의 산 이름으로 불려져 혼란을 겪던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뒷산이 영축산으로 공식 결정됐다. 6월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국립지리원 중앙지명위원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어 이미 고시된 영취산을 영축산으로 변경고시키로 의결하고, 이를 양산시와 경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진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판절의 통증과 붓기가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정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자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않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순추복 재질:모직혼50%
1.적삼, 바지, 조끼 ₩130,000
2.중 방 ₩110,000
3.두루막 ₩120,000
하복 재질:모직혼50%
1.적삼, 바지, 조끼 ₩130,000
2.중 방 ₩110,000
3.두루막 ₩120,000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김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몽배 셔츠
7.조끼, 몽배 ₩50,000
7.셔츠 ₩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佛經漢文敎育科
▶ 男·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7월 5일 ~ 8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大學院 과정
3.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4. 教育期間 ● 3년(6학기)
5.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 1회 출석특강
6. 卒業惠澤
● 수학증서 수여
● 불경한문강사 자격증 수여(심사 합격자)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무료)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法華三部經講院
책임교수 崔光永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우:701-600)
053)952-8711 · 017)501-871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통령 할아버지 북한산 살려주세요"



◇범불교도대회에서는 북한산에 순번제로 상주하며 송추현장을 수호할 북한산알리기 환경수호대가 발족됐다.



◇한 비구니스님이 대회현장에서 혈서를 쓰며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산 파괴규탄 범불교도대회 주변

비구니스님 6명 '수행환경수호' 혈서
오색 딱다구리 등 위로 운판 봉정식 봉행

정대 총무원장의 결단 촉구

○…6월 26일 조계사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에서 회룡사 비구니 능진스님 등 6명이 갑자기 혈서를 쓰며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자 마이크를 잡은 한 비구니 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나서야 합니다. 수행정진 도량 수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북한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범불교도대회에는 본래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원장이 참석치 않아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대독했다.

'환경수호대' 결성, 북한산지키기

○…범불교도대회 식전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노래패 '예쁜 아이들'은 환경보호공연에 이어 촉구문을 통해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북한산을 찾을 때도 오늘처럼 문화재들을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북한산의 친구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운판 송추 철마선원으로 이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색딱따구리 등 북한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로하는 운판 봉정식이 봉행됐다.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스님의 집전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운판에 청수와 팥을 뿌리고 타종했다. 이 운판은 송추 5공사현장에 세워진 철마선원으로 이운됐다.

LG제품 불매운동 대대적으로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인 탤런트 김용숙씨와 가수 김홍국씨는 불자를 대표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LG그룹 제품의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김홍국씨와 김용숙씨가 '2000만 불자는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 기업 LG그룹의 모든 제품 구입을 거부한다' '비구니 수행자를 폭행하고도 일체의 사과 한마디 없는 LG그룹의 모든 제품 구입을 거부한다'고 외치자, 참가 대중은 구호를 따라 외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전국돌며 환경파괴 고발키로

○…범불교도대회 후 실천행사에서 '북한산 환경파괴 고발 차량'이 인사동을 통과하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발차량에는 LG건설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에 벌목한 나무와 환경작가 최병수씨의 생명살림 작품을 함께 실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렸다. '북한산 환경파괴 차량'은 전국을 돌며 북한산 환경파괴를 알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마곡사문제 진상조사

대전 34개 신행단체, 총무원에 재선거 요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6월 25일 종무회의에서 "마곡사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호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마곡사 제22대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충청포교사단 등 대전지역 34개 신행단체는 13일 '진각스님을 마곡사 주지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신행단체는 성명서에서 △음란한 행실 △동학사 불법 뇌물수수 △허위문서 작성 △ 수행이력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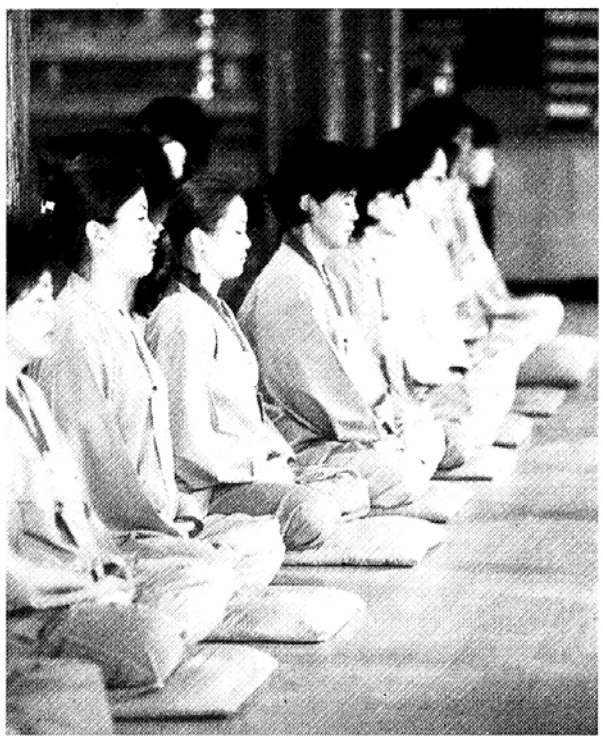
주지후보 선거에서 10표 차로 진각스님에게 패한 장곡스님(갑사 주지)도 14일 조계종 중앙종회에 "진각스님은 본사주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마곡사는 6월 18일 '진각스님을 마곡사 주지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대전지역 34개 신행단체장에게 '사실 확인 및 협조의뢰(사법기관 고발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마곡사는 주지명의의 공문을 통해 "34개 신행단체는 성명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6월25일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마곡사 주지 임명장 수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곡사 주지선거전 주지자격 심사 때 진각스님 적격 판정을 내린바 있다.

김원우 기자



막오른 여름수련회 6월 25일 해인사 수련회를 시작으로 사찰 여름수련회의 막이 올랐다. 여름수련회는 8월 31일까지 전국 60여 사찰에서 열린다. 사찰 여름수련회는 해마다 신청인원이 넘치는 등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해인사 올 여름수련회에서 좌선하고 있는 수련생들. 해인사=고영배 기자

금산사·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7월 13~14일 김제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 및 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100여명의 신도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연수회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 교수가 '시대가 요구하는 신도임원의 상'을, 김응철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 교수가 '신도회 활성화에 대해'를,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신도회 조직운영관리에 대해'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김재경 기자

중증장애인 자활시설 어울림터 개원

독실한 불자들의 원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작업활동센터가 제주도내 최초로 개원됐다. 춘강 사회복지법인(이사장 이동한)은 1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를 개원했다.

어울림터는 지상 90여평의 단층 건물로 내부에 쉼터와 간이수공업 시설을 갖추고 1~3급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기숙사, 편의시설 등 미비한 시설은 향후 추가 건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안암학사' 대책위 구성키로

종단·학교·학인 등 대표자로, 실무 작업착수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6월24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60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안암학사 문제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책위원회는 종단, 학교당국, 학교법인, 학인, 동문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안암학사는 지난해 11월 고시원으로 입대됐으나,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상반기에 강제이행금 8천여만원과 9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현재 안암학사는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도시계획법 위반,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종교환경회의, 종교인 대화마당

'연관과 조화위한 밥과 생명' 주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4·5일 양일간 서울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제2회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연관과 조화를 위한 밥과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대화마당 첫째날에는 이어령 교수(이화여대)의 '밥과 생명, 조화로운 세상' 기조강연에 이어 이병인 교수(밀양대)가 '발우공양정신과 생명존중사상', 소설가 박완서씨가 '밥과 생명, 영성의 삶', 안상남 목사(여성교회)가 '생명밥상의 실천과 종교인의 삶'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남동우 기자

전국군법당 천도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군불교위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발발 52주년을 맞아 호국원광사를 비롯한 전국의 군법당과 부산 내원정사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국군신도회)와 군불교위원회가 6월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는 건군이후 사망한 일체 장병영가를 비롯해 월남파병 전몰장병 영가, 6·25 참전 UN군 전몰장병 영가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호국영령 청혼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영가위패를 국방부 취타대와 의장대의 선도로 호국원광사로 이운,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국군신도회는 6월을 '호국 영령 및 순국선열에게 기도하는 달'로 설정해 육·해·공군 부대별로 천도의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도 6월25일 만불전에서 제22회 육·해·공군 전몰장병 순국선열 순직경관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 49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1천명이 참석한 이날 회향법회는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의 영가천도 기도로 시작되어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이날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지금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그것이 곧 조상과 후손들을 그대로 건지는 천도의식과 같다"고 법문했다.

박봉영 기자

KBS VJ 특공대, SBS 호기심 천국에 출연한
법운 선생의 최면 특강
최면 전생요법으로 전생의 당신을 만나 보십시오
강의 내용
1) 원격최면
2) 제령최면
3) 전생최면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강의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교 육 비 : 최면 입문과정 10만원
최면 전문가 과정 100만원
문의: 051)806-8500, 817-6156
동방최면전생연구소

속편안한세상
부건 속편 차(茶)
위 속편 茶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 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들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능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살맛 난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히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6966 / 017-724-3355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혼신 부처님 "마야관음"을 아십니까?

"맞네 내변청" "맹 이허가하량켤 한클 와 며한힌 서 다."

불(火)이 바람(風)으로

현세 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당신"과 "가족"을 지켜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또한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모셔오면서 혼이 그대로 배인 "마야관음" 상에 합장 배례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이 흔적조차 남길 수 없다면, 정말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의업계와 석재업계에서는, "결국 묘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야관음"은 바로 이런 쓸쓸한 날을 대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마야관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자애로움과 자비화현 관세음보살의 숭고한 원력을 지닌 분입니다.

생사를 초월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나투시며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 살아서 지닌 호신불 "마야관음"은 죽음의 그 순간과 그 이후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감 속에 모셔진 "마야관음"
불감 크기 97mm/폭 65mm/ 깊이 45mm



▲ 확대

▲ 실물 크기의 "마야관음"
높이 75mm/ 직경 18mm

"마야관음"은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 **일상생활에서**

-집에 모시고 늘 기도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스승님 친지 등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선물로 대단히 좋습니다..

● **본인 사후**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 관에 "마야관음"을 함께 넣어서 정토로의 동행이 가능케합니다.
-유가족들은 조상님이 생전에 모셔왔던 "마야관음"을 봉양하면서 기도하고 고인의 음덕을 기릴 수 있습니다.





"마야관음" 세트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1. "마야관음"상 - 화인 세라믹제(금색 처리)
2. 석영유리 진공캡슐 - 화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야관음"을 보호하는 캡슐.
3. "마야관음" 불감 - 다이캐스팅 제본의 금도금으로 처리된 불감형식의 상자로 "마야관음"을 모셔두는 곳.
4. 마야관음 보호 도기 - 회장할때 마야관음을 모시는 케이스
5. 호신용 주머니 - 호신용으로 마야관음을 몸에 지닐 때 사용
6. 금속 명패 - 고인의 이름을 써 넣는 금속판.
7. 유언 용지 5매





"마야관음"은 호신불로 늘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모실 수 있는 크기 75mm의 관세음보살상. 돌아가신 뒤 1200 C로 화장되는 그 순간에도 원래 당신의 모습 그대로 금색의 불상으로 화현하면서 고인의 영(靈)을 봉양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 고인과 함께 사바세계를 빠져나와 정토로 영접하고자 하는 원(願)으로 특수 최첨단 공법과 지극한 지성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 입니다.

대리점 모집

불사를 함께 펼칠 대리점을 널리 모집합니다
상담 : (02)461-2037 / (017)320-0003

덕우코퍼레이션
구입 문의 (02)461-2037 017-320-0003